2013.01.28 NO.194
korea.kr/gonggam

Weekly 공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특별한 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의
지구촌 스포츠문화축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가슴벅찬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대회

- **대회기간 :** 2013. 1. 29(화) ~ 2. 5(화) / 8일간
- **개최장소 :** 평창(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용평돔), 강릉(실내빙상경기장 외 4개소)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이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참가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국가대표 유니폼을 전달하는 모습

청년이여, 세계가 부른다

하태윤
국립국제교육원장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되어간다. 많은 사람이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부푼 꿈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다.

하지만 청년층들이 새해에 내딛는 첫걸음이 여전히 무거워 보인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7.5퍼센트로, 전체 실업률 2.9퍼센트의 3배에 육박한다. 새해의 즐거움과 두근거림을 청년들이 같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안타까움이다.

젊은 세대는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주춧돌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겪는 어려운 취업상황을 세계경제 불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운 취업현실을 이겨낼 묘안은 없는 것일까?

2005년 캐나다 토론토총영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1960년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외화벌이에 나섰던 캐나다 이민 1세대들을 만났다. 광부와 간호사 출신으로 서독에 파견됐다 캐나다로 이민한 이들은 '동우회'라는 명칭의 한인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던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고국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시대의 진정한 기여자들이다. 1960년대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반세기 전 이 분들이 일군 해외진출의 성공 교훈을 젊은 청년들이 본받아 현재 겪는 청년실업의 난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더 큰 성공의 길이 숨어 있다.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안주하기보다 시야를 세계로 돌려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해보기를 권한다. 대한민국 신세대의 톡톡 튀는 끼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5대양 6대주의 넓은 세계를 향해 힘찬 항해를 떠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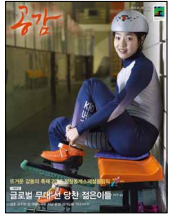
최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불굴의 의지로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한국의 평범했던 샐러리맨이 목축의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최대의 타조농장주가 된 이야기, 고졸 출신으로 디자인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청년이 브라질 의류업계 외판원에서 시작해 패션계의 거상이 된 이야기 등…. 이런 감동적 성공신화는 무수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특유의 성실성과 노력의 DNA가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휘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더 큰 성공의 길이 숨어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우리나라라는 한정된 공간에 안주하기보다 시야를 세계로 돌려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해보기를 권한다. 대한민국 신세대의 톡톡 튀는 끼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5대양 6대주의 넓은 세계를 향해 힘찬 항해를 떠나기를 기대해 본다. 청년 해외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부의 케이무브(K-Move) 정책에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Contents

194호
2013.01.28 통권 295호

표지 이야기 |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주인공들이 스페셜올림픽 무대를 빛낸다. 세계 지적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지구촌 축제. 이 축제에 참여한 애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현인아(창동중 2년) 선수가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오상민 기자

기획특집

글로벌 영 코리안 세계 무대 우뚝 서다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나라. 손재주가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한 민족. 근면과 성실을 중요한 미덕으로 인정하는 문화. 우리나라와 국민을 표현하는 말이다. 재능이 넘치는 한국인에게 한반도는 좁다.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글로벌 한국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 최고가 세계 일류임을 눈 앞에서 보여주는 글로벌 영 코리안들을 소개한다.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3.01.2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12일(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한국인의 사랑, 이웃에 돌려줘야죠"

네팔 이주민의 봉사 이야기, 안주하는 내 삶 깨워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위클리 공감〉이 있어 참 좋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친구들과 수다나 떨며 살았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91호에서 한국인의 사랑을 이웃에 돌려주는 네팔 이주민 가네쉬 리잘 씨의 봉사 실천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독거노인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의 모습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웨딩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위클리 공감〉의 기사를 읽으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열심히 디자인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기사 다뤄주세요 노령화사회에서 2모작 인생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클리 공감〉에서 보고 싶습니다. 안락한 노후 생활에 대비해 제2의 일터를 찾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지오 (주부·전남 여수시 여서동)

지난호를 읽고

재미 이상으로 국정 알아가는 즐거움 선사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위클리 공감〉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더 멋진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 '지금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다' '힘을 내보자' 등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 역할에 매우 뿌듯한 느낌입니다. 여유로운 시간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재미 이상으로 국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위클리 공감〉이 저처럼 국정에 무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안재일 (직장인·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엄마 고민 줄이는 나라예산 소식에 마음 든든

〈위클리 공감〉은 저와 같은 대한민국 엄마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2호 기획특집으로 다룬 2013년 나라살림 기사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5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한 시름 놓았습니다. 자식들, 특히 딸 아이의 안전을 정부가 앞장서서 챙겨준다니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른답니다. 법적 지원 확대는 물론 피해여성쉼터까지 세운다니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박차영 (주부·전북 남원시 월락동)**

새 연금저축제도 소개 기사, 노후 준비에 큰 도움

〈위클리 공감〉을 읽고 깨알 같은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종전의 세제혜택을 일부 개선한 새 연금저축제도가 생겼다는 기사를 읽고 스크랩해 친구들에게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줄이지 않고 의무납입기간은 바뀌어 더욱 좋아진 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 나니 믿음이 가서 저도 가입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머지않아 내게도 찾아올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길을 찾은 느낌입니다. **유세라 (과외강사·전남 여수시 웅천동)**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절약 노력에 공감

192호 '전력대란 대비 전기요금 인상' 기사를 읽고 에너지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력부족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주변에서도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전기의 가치를 높이고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방편의 하나로 이해됩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면 인상된 요금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임 (회사원·경기도 포천시)**

알림

시민체감형 U-City 서비스 공모전을 엽니다

국토해양부가 제2회 시민체감형 U-City 서비스 공모전을 엽니다. U-City는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신개념의 첨단 도시를 일컫습니다. U-City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 국민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다양한 U-서비스를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모부문은 U-City서비스 아이디어 부문과 UCC동영상을 이용한 U-City 서비스 활용사례 부문으로 나뉩니다. 대상 300만원 등 총 32작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공모대상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공모내용 ▶ U-City 서비스 아이디어 (스마트폰 앱 기획, 다양한 U-서비스 제안)
▶ U-City서비스 활용사례 (UCC)
공모기간 2월 28일까지
응모방법 개인 또는 팀(팀은 3인 이내) 홈페이지(www.u-cityservice.org) 접수
시상내역 대상 2편(상금 300만원), 금상 6편(상금 100만원), 은상 12편(상금 50만원), 동상 12편(상금 30만원)
유의사항 ▶ 아이디어 부문: 제안서, 패널(A0 사이즈, 10Mb 이하 JPG 파일로 제출)
▶ UCC 부문: 제안서, UCC 동영상(100Mb이내, 5분 이내)
문의 고등부 담당자: 카이스트 황진욱 042-350-3661
대학부 담당자: 성균관대 이은수 031-299-4779
일반부 담당자: 건국대 김영주 02-447-9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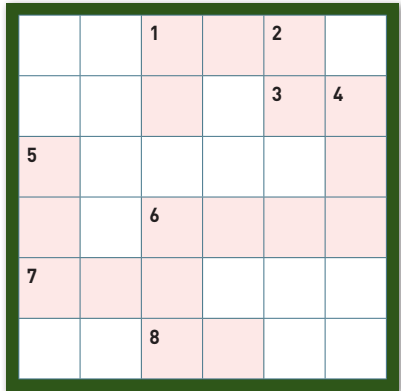
기능성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능성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능성 게임 개발을 확산하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육·의료/건강·공공정책·기업·군사 분야 등 기능성 게임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면 됩니다. 기능성 게임은 게임의 속성을 갖추고 정보전달·홍보, 인식·행동전환,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일컫습니다. 선정된 작품에는 대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내용 기능성 게임 개발 아이디어 (교육·의료/건강·공공정책·기업·군사 분야)
공모기간 2월 14일까지
응모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가능)
접수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재단사무실 산업진흥팀 신범희 매니저
시상내역 대상 1명(상금 500만원), 우수상 1명(상금 200만원), 장려상 3명(상금 100만원)
유의사항 제출자료는 계획서 1부, 원본이 포함된 파일(CD 또는 USB)
문의 032-623-8073, babythief@gdca.or.kr

바로잡습니다

〈위클리 공감〉 193호(1월21일자) 3면 목차에서 64면 소통과 공감 제목이 잘못 게재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25면 에너지관리공단 광고가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으로 잘못 게재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낱말맞추기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194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7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세계적인, 지구의, 전반적인'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 코리아.
3.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6. 주부들이 장보러 갈 때 들고 가죠. '○○○○ 물가'라고도 씁니다.
7.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
8. 여러 사람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가려 뽑음.

세 로
1. 모레의 다음날. "내일, 모레, ○○ 사흘 동안 출장입니다."
2. 일을 해 돈이나 재물을 벎. "요즘은 ○○가 괜찮다."
4. 어금니가 다 난 뒤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어금니.
5.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학생의 보호자.
6.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120여 국 3,300여 명의 지적 ○○○ 선수들이 참여해 함께 어울리는 인류 화합 축제의 장입니다."

〈Weekly 공감〉 192호(1월 1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산등 5 덕수궁 6 소금기 8 지원 9 회복세
세로 1 예산 2 인수위원회 4 등록금 6 소득세 7 기초

〈Weekly 공감〉 19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성욱·광주 광산구 수완로 김미경·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박차영·전북 남원시 월락동 변성혁·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노경민·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객관적·전문적·중립적으로 검증"

국민 혼란 없게 최대한 빨리 조사… 현 정부 임기 내 필요한 절차 시작

4대강살리기사업은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 시작해 현재 16개 보와 주요 시설을 완성했고, 나머지 공정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감사원이 4대강살리기사업 전반에 대해 우려 섞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안에서도 관계부처별로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1월23일 '4대강살리기사업' 검증에 나선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따라 자전거로 누빌 수 있는 세상이 됐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성과 중 하나다. 4대강 살리기는 홍수와 가뭄 대비, 수질개선, 여가공간 조성 등을 위한 다목적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 결과를 두고 최근 감사원이 '4대강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 실태'라는 감사 결과를 통해 보의 설계, 수질, 준설 악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후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국민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검증 대상은 ▶보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살리기의 전반이 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정부의 이번 검증이 객관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철저히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또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정부 임기 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사업단계마다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을 받아 추진해 왔고, 제기된 문제는 계속 보완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4대강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자료 환경부 단위 mg/L

4대강 보의 구조

자료 국토해양부

보 설계기준 4m 아닌 15m로 시공

감사원의 지적 가운데 "대규모 보에 4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보'는 구조물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되어 있다. 4대강 보는 15미터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됐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4미터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되어 있거나 시트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BOD 기준 적용으로 수질 개선 효과

4대강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4대강 보 설치구간 내 수질을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BOD가 예년 대비 10퍼센트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고, 총인(TP)과 조류농도(Chl-a) 등 대부분의 수질 항목이 개선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4대강 전 구간을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설한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전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예방과 물 부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설했다는 설명이 따랐다.

임실장은 "4대강 살리기가 완료된 지난해에는 기록적 홍수와 가뭄에도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그간 방치돼온 수변공간이 생태공원·자전거길 등으로 탈바꿈되어 많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를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나 특히 우리 기업이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4대강의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감사원 지적사항과 정부합동 설명 비교

구 분	감사원 지적	정부 합동 설명
보 설계 기준	• 4m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기준 잘못 적용 • 설계 잘못으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세굴피해가 발생해 11개 보의 안전성 저하 우려	• 하천설계기준에 '보'는 높이 15m 미만 구조물로 규정돼 있고, 4대강 보는 15m 미만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시공 • 보의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되어 있거나 시트파일(sheet file)로 단단히 고정되어 안전
4대강 수질	• 보 설치에 따라 유량의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 증식 가능성 높여져 BOD 중심의 수질관리가 수질악화 초래 우려 • 보가 설치된 하천은 '호소' 성격이 강해 COD·조류농도 등도 수질관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 그간 하천 수질은 BOD를 중심으로 관리 평가해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BOD 항목으로 개선목표 설정 • 향후 기후변화와 변화된 물 환경 여건을 감안해 COD 항목도 관리 강화 예정
준설	• 최소홍수기준 및 물 부족량 초과해 준설, 유지준설비용 과다 예상	• 기후변화에 대비, 200년 빈도 이상 홍수 방어가 가능하고 이상가뭄에 대비해 충분한 물 확보가 가능하도록 준설, 재퇴적은 점진적 축소 예상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택시 사업·운전·이용자 만족할 방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재의 요구… "자금지원·면허총량제 운용"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업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가 국회 통과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만큼 택시법안이 두고 두고 국민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공급과잉으로 어려워지는 택시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택시법을 대신할 대체법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택시지원법을 제안했다. 택시법 재의요구가 이뤄진 1월 22일 서울역 일대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다.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2일 재의요구를 행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식명칭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인 택시법의 국회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택시법은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222명 찬성으로 통과돼 1월 11일 정부로 넘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최종 서명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택시법을 재의요구한 데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면서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법안대로면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면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인 모든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마다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재정부담 우려도 택시법 거부의 중요한 배경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시내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생긴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연결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시내버스 지원체계를 보면 약 80퍼센트 이상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택시까지 같은 재원을 요구하면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택시는 포화상태다. 2011년 기준으로 면허택시는 25만5,000대, 택시기사는 29만4,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15년간 면허대수는 24퍼센트 증가한 반면 수송실적은 23퍼센트 줄었다. 2009년 기준으로 수송부담률은 9.4퍼센트에 불과하다. 택시를 타려는 수요는 줄고 택시는 늘고 택시기사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서비스 불만은 커지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일명 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입안했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택시사업자·운전자·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택시지원법은 택시회사 사장에게 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준다. 택시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감차할 때 일정금액을 보조한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거나 지자체 택시 차고지를 건설할 때도 지원금을 준다.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할 구조조정 지원

앞서 지적한 대로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기존 택시법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이에 비해 택시지원법은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와 수급조절을 위해 총량제를 운용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택시지원법안의 면허 총량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한 사업구역에 면허택시가 많으면 면허를 양도·양수·상속하는 데 제한을 둔다. 또 택시회사의 경영·서비스를 평가하고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택시지원법안에는 택시 운전자의 복지 개선 규정도 들어 있다. 운수종사자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차량 구입비나 연료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운전자가 장시간 근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택시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의 입장에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성범죄자 등 중죄인은 아예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출 시스템도 만들었다.

대중교통법안과 택시지원법안 비교

구 분	대중교통법안	택시지원법안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제11조) 구조조정 지원** • 합병 등 구조조정시 재정지원 **(제12조) 재정지원** • 친환경 택시 전환 • 택시 시설 확충	(제6조) 재정지원 • 합병 등 구조조정시 재정지원 • 택시감차 보상 • 친환경 택시 전환 • 택시 시설·장비 확충 • 자자체 택시 차고지 건설 (제13조) 조세감면 • 지특법, 조특법에 따라 차량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감면(경감) (제14조)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제11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시간 근로 방지 등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11조) 구조조정 지원** •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시 재정지원	**(제6조) 재정지원** •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 및 감차 재정지원 **(제8조) 면허 총량제 강화** •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양도·상속 금지 **(제9조) 구조조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 미달, 일정수준 벌점 초과시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없음	**(제9조) 구조조정** • 서비스 평가 및 불법행위 처벌(벌점) 강화 (제12조) 운행관리시스템 구축 •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시스템을 통해 단속
택시만을 위한 특별법적 성격	택시만을 위한 특별법적 성격 모든 대중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택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이 필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전담 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정책에 즉시반영 가능

한편, 정부는 택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별 고급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택시 수를 줄이는 동시에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국가위상·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아

G20 정상회의·GCF 사무국 유치… 세계경제 위기 속 국제신인도도 상승

이명박정부는 세일즈외교와 다자외교 등 탁월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두 차례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순항시키며 국제신인도를 끌어올렸다.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굵직한 국제행사를 수 차례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핵안보정상회의(2012) 개최 등 경제·안보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국제기구화 등을 통해서는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을 선도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첫 사례로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손꼽을 수 있다. 아시아 최초, G8 국가가 아닌 나라 가운데 최초 개최 기록을 세웠다.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는 기틀을 제공했다.

이명박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제 마련을 주도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협력을 유도하고, 개도국 빈곤 문제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개발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도 수행했다. 단순한 정상들의 회의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전환점이었던 셈이다.

3개 대륙 FTA 경제영토 일본의 3.6배

미국 〈타임〉지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통상분야에서 국제적 위상 재정립의 성과를 가져온 이명박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실질적 경제영토 확장도 이뤄냈다. 우선 유럽·북미·아시아 3개 대륙으로 FTA 체결을 확대해 세계 3위(세계GDP대비 57.3퍼센트) 수준의 경제영토를 확보했다. 이는 일본의 3.6배 수준에 달한다. 터키·콜롬비아 등 신흥경제국과 FTA를 마무리하고, 중국·일본과 FTA 협상을 개시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특히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FTA와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대외여건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둔화 추세에도 한·EU FTA 발효 후 1년간(2011년 7월~2012년 6월30일) 대EU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16.3퍼센트)했다. 대미 수출도 마찬가지다.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대미 전체 수출은 4.2퍼센트 증가했지만, FTA 혜택품목은 13.9퍼센트나 늘었다.

개도국 최초 원조 수혜국서 공여국으로 변신

뿐만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이명박정부는 5년간 연평균 3.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독일은 연평균 0.6퍼센트, 일본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평균치(3퍼센트)를 넘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브라질·한국 등 4개국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로 주요 8개국(G8) 중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 수출국(2010) 진입, 개도국 최초 무역규모 1조 달러(2011) 달성, 세계에서 일곱 번째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가입을 이뤘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총회는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처음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나라 중에서 원조를 받는 위치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첫 사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를 두고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 기적(Korean miracle)'의 작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결과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지역	참가국
유럽	23
아시아	12
중동	7
아프리카	3
대양주	2
미주	6

참가국과 국제기구
53개국 = 세계인구 80% · GDP 90%
4개의 국제기구/연합 UN·IAEA·EU·INTERPOL

45회 양자회담
- 정상회담 24회
- 총리회담 9회
- 외교장관 회담 12회

자료 ·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2012년 3월에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평화와 안보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행사로 평가된다. 53개국이 참여한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자외교, 양자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가 최선의 시너지를 창출한 총력·복합외교의 모델을 보여줬다. 단일 행사기간 중 역대 가장 많은 총 45회의 양자회담을 개최해 국가이익 실현에도 앞장섰다.

이명박정부의 국격제고는 스포츠부문에서도 발휘됐다.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강원도 평창이 확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구), F1 그랑프리 등 5대 메이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됐다. G

글·최재필 (월간중앙 기자)

외교력 앞세워 경제영토 대폭 확장

49차례 84개국 순방, 지구 19바퀴 돈 셈… 미래 먹거리 만들고 안보 강화에 힘써

국토는 좁고 자원은 부족한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번영의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외교 지평을 넓히고 외교력을 확장해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보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코리아가 된 지금 '외교가 바로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10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국토는 좁고 자원은 적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말이다. 외교 지평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영토 확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49회에 걸쳐 84개국을 순방했다. 역대 대통령 중 해외순방 횟수가 가장 많다. 비행거리만 75만8,478킬로미터다. 지구를 약 19바퀴 돈 셈이다.

참석한 행사만 1,269건에 이른다. 다자회담을 포함한 정상회담도 170차례나 진행했다. G2(미국·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ASEAN)·중남미·아프리카 등과 전방위 글로벌 외교를 펼쳤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퍼센트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만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반구 고위도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찾았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에는 전 세계 미개발 자원의 22퍼센트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자원 중 석유는 13퍼센트(900억 배럴), 천연가스는 30퍼센트(47조 입방미터)가 이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린란드의 희토류는 중국의 40배나 된다.

이 대통령은 그린란드 방문에서 쿠피크 클라이스트 자치정부 총리, 프레데리크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 등과 함께 쇄빙선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일룰리사트 빙하지역의 기후변화 현장을 둘러본 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한 녹색성장·자원개발 등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북극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외교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이 대통령은 뜨거운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UAE)를 세 번이나 방문했다.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매장국으로 전체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임기 마지막 해외순방국으로도 UAE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방문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전 개발, 원전 건설, 통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숫자로 본 이명박정부 5년 외교·안보 성과

19바퀴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행거리는 75만8,478킬로미터. 이는 지구를 19 바퀴 돈 셈이다.

10억 배럴 UAE와 협상을 통해 확보한 원유 채굴권

45개 나라 한국과 FTA 협약을 체결한 국가 수

800킬로미터 300킬로미터에서 늘어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액 3배 증가

무엇보다 큰 성과는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고 GS에너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UAE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도 했다. 한국석유공사 서문규 사장은 순방중인 이 대통령에게 UAE유전개발 사업 현황을 보고하면서 "UAE 유전개발의 의의는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북극권·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전략지역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07년 4.2퍼센트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자원 수입물량 중 자국이 개발·투자에 참여해 확보한 비율)을 2011년 13.7퍼센트로 높였다. 올해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져 2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액은 2011년 12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명박정부는 특히 ASEAN과 FTA를 기반으로 교역·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대상이자 EU에 이은 제2의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했다. 무역규모는 2009년 719억 달러에서 2011년 1,25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중·일·러와 동반자관계 더욱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동반자관계도 더욱 강화했다. 중국과는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한 이래 경제·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러시아와도 2008년 9월 역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는 성과도 있었다. 철도·에너지·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경제 현대화 등 전략적실질협력관계도 증진했다.

대북정책에서는 '퍼주기'식 접근법을 지양하는 정책행보를 지속했다. 남북협력을 위해 북한에 비핵화와 군사도발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리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 미국·중국 등 한반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동시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군사적 대안도 마련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연장하고, 무인항공기 탑재중량도 500킬로그램에서 2,500킬로그램으로 늘렸다.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UN총회·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G

글·박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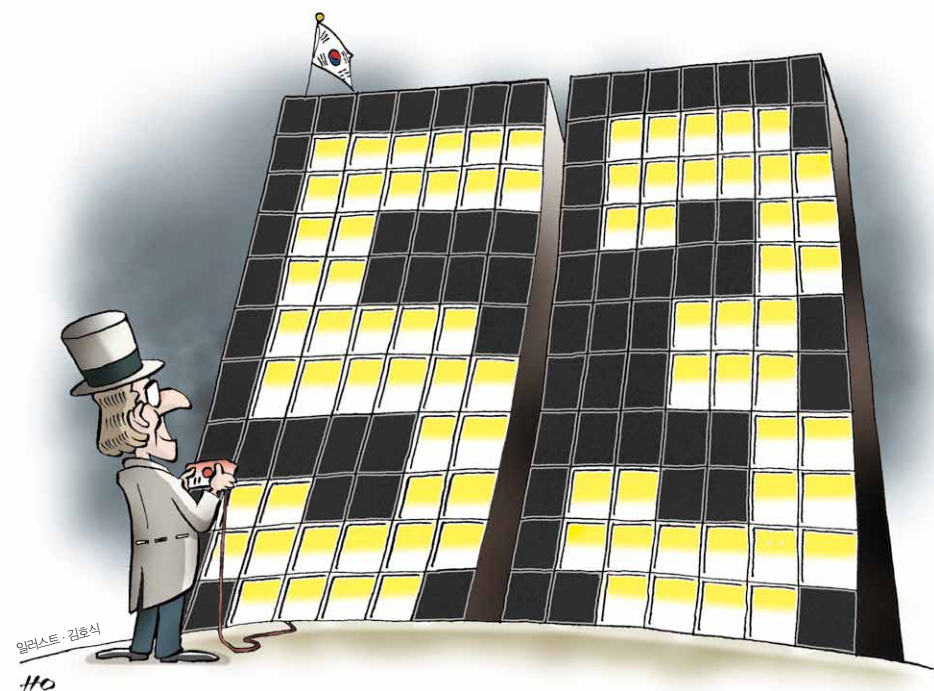
중앙포토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해외순방 횟수와 방문국 수가 가장 많다. 지난해 5월 12일 중국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는 이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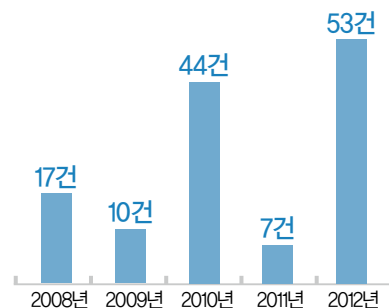
국격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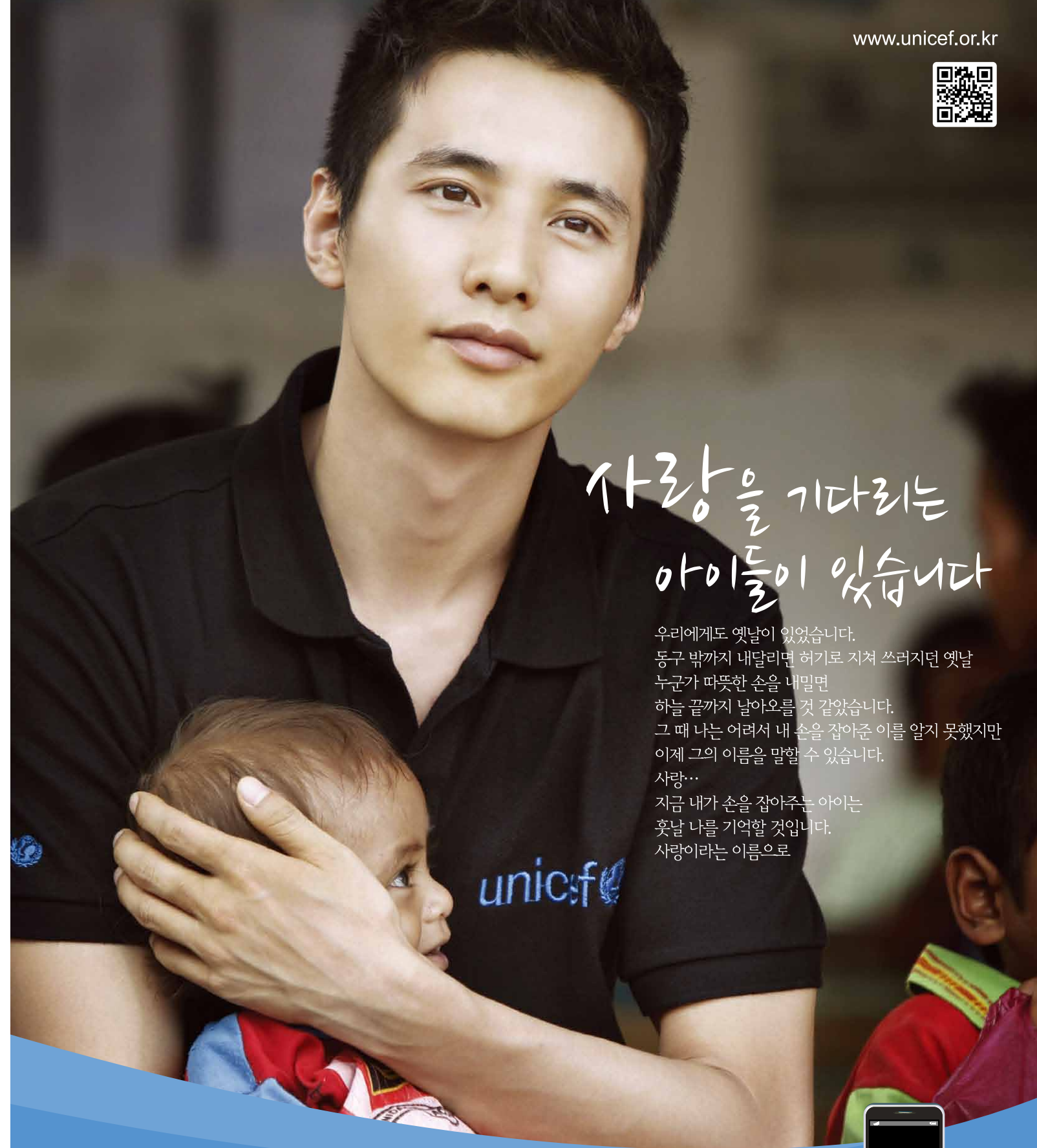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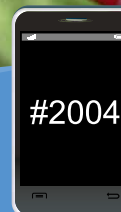
외교 안보

자료: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기업 신용등급 향상 53건

국내기업의 신용등급이 지난해 대폭 향상됐다. 무디스(Moody's)·피치(Fitch)·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정부를 포함해 한국기업 33곳의 신용등급을 총 53건 올렸다. 2005년 68건 이래 최고 실적이다. 공기업과 은행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향상된 신용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국가의 대외 신용평가가 좋아지면서 국내기업의 신용도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김슬기 기자

3대 국제 신용평가사 5년간 한국기업 신용등급 상향 건수

2012년 신용등급 상향조정 한국기업

무디스	피치	S&P
정부, 하이닉스	정부	정부, 한국석유공사, LH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하이닉스	하이닉스, KEPCO, 한국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서부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한국남부발전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기아자동차, 한국중부발전
현대자동차	산업은행,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기아자동차	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SC은행
현대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광물자원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수출입은행, 한국남동발전, 서울시,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외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칙 세우고 국민과 소통 앞장설 적임자”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작업 가속도… 청와대 크기 줄이고 역량 높이는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1월 24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2차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5일 발표한 1차 정부 조직개편안에 이은 2차 개편안은 부처 간의 기능 이관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1월 24일 새 정부 국무총리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직접 발표하고 “김 총리지명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희망을 줘왔다”면서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김 총리지명자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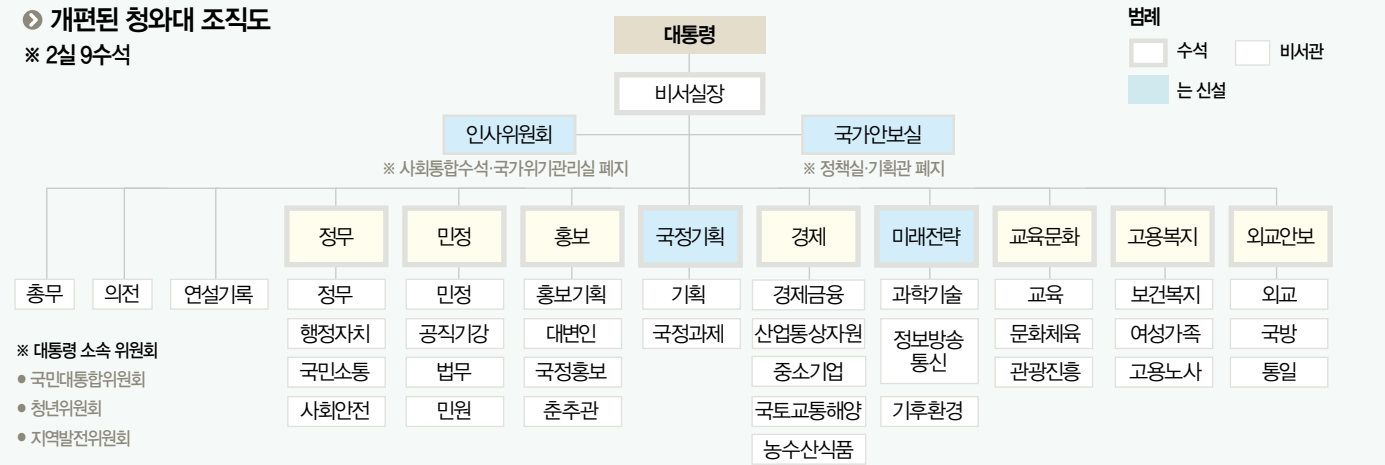
김 총리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할 정부의 첫 총리로 임명받으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후보자는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평소 법치를 강조해온 김 총리후보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무총리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새 정부의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구성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청와대 조직개편이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 강화 ▶국가 전략기능 강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1월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첫 총리후보로 지명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먼저 현재의 조직에서 정책실장과 기획관 제도를 폐지한다. 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기획수석실과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한다. 급변하는 대외 안보·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실도 만든다.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능을 개선 발전시키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한다.

한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월 22일 정부 부처 간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한 2차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1차 정부 조직개편안에 이은 것으로, 1차 개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부처 간 세부 기능 이관 내용을 담았다.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조정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둔다.

과학기술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국무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기능도 옮겨온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 발굴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을 이관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로부터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을 옮겨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 기능을 관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기능 수행 부처 신설에 따라 폐지한다.

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기능 조정 해양수산부로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어촌개발·수산물유통에 관한 기능을 옮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의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위 격상과 기능 조정은 빈번한 식·의약 관련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기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옮겨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른 관련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

글·박경아 기자

국가안보 시스템 효율성 직접 확인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점검도… 당선인 공약 실천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모색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1월 24일부터 인수위의 현장방문이 시작됐다. 현장방문 첫날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들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5사단을 방문했다. 5사단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가장 먼저 설치한 곳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와 전문위원들이 1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열쇠전망대 아래 남방한계선 철책의 경계상황을 둘러 보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안에 위치한 열쇠전망대에 서면 바로 아래로 남방한계선이 보인다. 멀리 북한 땅이 한눈에 펼쳐진다. 육안으로도 조망이 가능하다. 겨울철에는 눈에 파묻혀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모두 하얗게만 보이지만, 엄연하게 남북한이 대치하는 안보의 최전선이다.

지난 1월 24일 오후 휴전선 거의 정 중앙, 깎아지른 듯한 능선 위에 자리 잡은 열쇠전망대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방문했다. 5사단 일반전방초소(GOP) 경계작전부대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설치·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5사단은 더 적은 병력으로 더욱 효율적인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한 곳이다.

인력과 기술 균형 이뤄 안보불안 차단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고성능 카메라 등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 ▶철책에 설치한 광망으로 대표되는 감지 시스템 ▶소초와 중대·대대 상황실 ▶지원·부수장비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원거리에서도 적의 침투나 귀순 같은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지난해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동해선경비대의 철책을 넘어 GOP 소초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사건으로 국민의 안보불안이 높아지자 국방부가 휴전선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오는 2014년까지 조기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GOP 경계시스템은 2013년 동부지역, 2014년 중부지역, 2015년 서부지역까지 모두 구축하기로 했으나 이른바 '노크귀순사건'을 계기로 서부지역도 1년 앞당겨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18개 소초 중 전망대를 기준으로 우측 12개 소초만 현재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노크귀순사건처럼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올 수 없도록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해야 하는지 관련 실험도 했다.

올해 안에 취약지역에 중거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기 열상감시장비(TOD)전력화 계획도 보완해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효율성 점검을 위해 국방정책공약으로 '휴전선 경계근무 원점 재검토'를 제시했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실제 운영현황을 파악해 휴전선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5사단을 찾은 것이다.

병사들 동절기용 발열조끼 효능도 살펴

열쇠전망대에 도착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김장수 간사와 전문위원들은 최병로(소장) 5사단장 등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다. 먼저 지형설명에 나선 백충은 대령은 "서울에서 7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서 8킬로미터 거리에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백마고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것이 남방한계선이며, 바로 그 철책선 위에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감지 시스템인 광망이 격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고 소개했다.

최병로 5사단장은 '노크귀순' 이후 5사단에서도 과학화 소초와 비과학화 소초 등의 실정에 맞춰 경계강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들은 현황보고를 들은 뒤 직접 남방한계선 철책까지 다가가 설치된 광망을 살펴보았다. 이어 열쇠전망대에서 약 5분 거리인 소초에 들러 소초 상황실을 돌아보고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무자들에게 확인하기도 했다.

분과위원들은 이와 함께 병사들에게 지급한 동절기용 발열조끼가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전방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병사들의 생활환경이나 복지여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발열조끼에 대해 전방 근무자들은 매우 훌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병들의 숙소가 있는 소초 생활관을 둘러본 분과위원들은 "대한민국 국군 사병들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반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글·박경아 기자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숙련도 필요한 곳 부·하사관 늘려야"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효율성 점검을 위해 필요한 방문이었습니다. 또 우리 분과위원들이 안보의 최첨단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감을 느껴야겠다 싶었습니다."

김장수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와 5사단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좀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김 간사가 육군참모총장 시절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시범실시할 곳으로 5사단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와 보시니 현지 상황이 어떠하던가요?

"그간 이 시스템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쯤 5사단만큼은 운용이 정착돼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간부들이며 현장근무자들이 안정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높은 기술수준의 장비일수록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는 오작동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력 대신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1,4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수준과 인력 투입의 균형을 맞춰 가장 합리적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 효율적인 과학화 방안이 있다면?

"IT 장비를 지금 요구받아 설치하면 그때쯤 새로운 장비가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부품 교체비용이 신형 장비 구입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필요 장비를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 구입하기보다 전체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 하나씩 갖춰가는 방식,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도 도입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병력자원 감소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의 의무복무기간으로도 2020년 이후부터는 병력자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은 부사관·하사관을 늘려 배치하고, 숙련도가 필요 없는 부분에는 의무복무하는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금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전경·의경을 줄이고 여군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손톱 밑 가시' 222건 쏟아져

200여 명 중소기업인 "불합리한 제도 고쳐달라"… "중소기업 옴부즈맨 설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는 1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이 '손톱 밑 가시'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에 들어갔다. 아픈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가능한 법이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인수위는 해결책 모색에 들어갔다.

지미연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담은 〈현장에서 전해온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책자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급선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1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인수위가 1월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위 간사, 서승환 분과위원 등은 이날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222건을 담아 책자로 만든 〈현장에서 전해온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산품이 아닌 수입품이 된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수출기업들이 환급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자산가치의 80퍼센트를 평가받는 일반기업과 달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40퍼센트만 평가받는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도 지적했다.

중소기업 상속세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980년부터 자동차부품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키워야만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데 거위를 죽이는 게 중소기업 상속세"라며 "근검절약해서 자녀들에게 기업이나 자산을 물려주는데 상속세까지 내야하느냐. 세금은 내가 살았을 때 추가로 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도 "상속세 문제는 중소기업 모두의 문제"라며 개선 요구에 힘을 보탰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하청 건설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전자어음)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제도로 인해 중소 건설업체 100개 중 21개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이고 건설업을 하는 주변 3명의 중소기업 사장은 자살했다"고 하소연했다.

'네일숍'을 운영한다는 한 여성 중소기업인은 "손톱과 발톱을 다듬고 보정하는 가게를 차리려면 미용사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네일숍 허가를 낼 수 없다"며 "손톱·발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미용사자격증이 왜 필요합니까"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 많이 쌓여야 선진국"

한 외식업 종사자는 "외식산업을 관리·감독·규제하는 곳이 보건복지부·농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다른데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에만 40년을 종사했다는 또 다른 중소기업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이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도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역설했다. 환율파생상품 키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키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은행은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하는 반면 우리는 중소 로펌을 내세워 싸운다"며 "힘이 밀리는 중소기업은 5년이 지나면서 50여 업체가 폐업했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이밖에 ▶한방치료 보험 적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교육훈련 전문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시행 ▶다국적대기업 횡포 차단 ▶도금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산업용 폴리에틸렌(PE)관 폐기물부담금 부과 폐지 ▶인증제도 개선 ▶중소업체도 택배업체로 인증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항상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고 많이 쌓여야 선진국이 된다고도 말했다"면서 "절대 적어놓고 그냥 두지는 않는다. 항상 챙긴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글·박기태 기자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중견기업 성장 때 경제도 한 단계 성숙"

오늘 중소기업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기업을 이끄는 진정한 산업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중소기업인의 고충은 무엇입니까?

"개성공단의 담보 리스크 문제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지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을 수입품으로 보는 부분은 외국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장기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이 예상됩니다. 먼저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도가 있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 작동하지 않거나 업태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요?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보여주는 구체적 통계자료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관심을 보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배경도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우리 경제도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손톱 밑 가시가 뽑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설치하겠습니다. 법제화와 제도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관계개선이나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한층 건강해지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특집

글로벌 영 코리안 세계무대 우뚝 서다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나라. 손재주가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한 민족. 근면과 성실을 중요한 미덕으로 인정하는 문화. 우리나라와 국민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재능이 넘치는 한국인에게 한반도는 좁다.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글로벌 한국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작은 벽에 포기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고. 한국 최고가 세계 일류임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글로벌 영 코리안들을 소개한다.

젊음의 영토를 넓혀라, 국가가 돕는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등 정부와 함께하면 수월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이들에게 바다 건너 세상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의 무대다. 정부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 꿈을 펼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해외인턴사업 등 세계 무대를 꿈꾸는 글로벌 영 코리안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의 해외취업·인턴 지원정책들을 소개한다.

일러스트 · 김회룡

대학 3학년인 강마리(가명) 씨는 현재 국제기구 인턴십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동안 영어와 프랑스어를 착실히 공부했고,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러 지원요건도 꼼꼼히 챙겼다. 하지만 강씨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원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현지 진행 인터뷰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서였다. 의기소침해하던 강씨는 최근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인턴사업인 'WEST 프로그램'을 통하면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었다.

WEST는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의 약자로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어학연수 및 인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는 2009년 이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참여 인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WEST 프로그램 지원자격 안내 및 신청은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재능 넘치는 젊은이에게 이미 한국은 좁다. 기성세대에게 외국은 새로운 문물을 배워오는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세계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꼭 챙겨봐야 할 내용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청년 해외진출 지원제도들이다. 2008년 총리실 주체로 마련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도 그 중 하나다. 이 사업은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의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해외취업 사이트인 월드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분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해외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에서 성공하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노스콜로라도대 민성익 교수는 "외국에서 성공하려면 그들보다 더 낫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착실히 실력을 키워가며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해외취업 "독일은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직군과 형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직에게는 아주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난 1월 12일 코엑스 B홀에 위치한 카페에 10여 명의 젊은이가 모였다. 이들은 독일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었다. 마침 코트라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가 열리자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독일 상무관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30여 분 정도 다양한 대화를 나눈 이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라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50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의 인재를 찾았다.

정부는 코트라를 비롯한 해외 리쿠르트사와 협의해 해외취업 사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월드잡 홈페이지에는 정부 해외공관부터 현지 한국기업, 한국과 무역을 늘리는 현지기업의 구인정보가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온다. 정부는 특히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훈련비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의 관 주도 사업에서 민간 해외취업기관의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인턴 "4개월 동안의 해외 인턴 과정은 제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외식사업에 대한 감각도 생겼고,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을 다녀온 이태호 씨는 해외인턴사업에 높은 점수를 줬다. 울산대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이씨는 나중에 외식업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다. 그는 더욱 다양한 경험을 위해 해외인턴사업에 지원했다. 정부는 왕복 비행기값과 월급 6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동료들과 숙소를 함께 사용하며 업무경험을 쌓았다.

해외인턴사업은 우리나라 젊은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매년 2,000여 명의 젊은이가 다녀와 2012년 9월 현재 모두 1만60명의 인턴이 해외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노윤환 사무관은 "정책의 목적은 한국 젊은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시장을 국내외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욱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 간 양해각서(MOU) 또는 인턴십 교류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외 인턴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해외봉사 대학생인 박가영 씨는 2011년 5월 동티모르로 향했다.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인 '월드프렌즈코리아(WFK)'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동티모르에서 보낸 시간은 6개월. 이 기간 동안 박씨가 보낸 시간은 예상과 달랐다. 애초에 박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였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박씨의 예상과 전혀 다른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정부 운영 인턴사업 무엇이 있나

부처	사업명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교육·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
여성가족부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농업진흥청	해외 농업 연구인턴
지식경제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 플랜트 해외인턴, 전시회 해외인턴 해외 한인기업 인턴
농림수산식품부	유럽글로벌인턴, 외식기업 해외인턴, 해외농업인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관광인턴
국토해양부	물류인력 해외인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해외인턴

시간이 지나고 많이 나서야 박씨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문서에 적인 수치 하나가 많은 사람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박씨는 "개인이 산간마을까지 식량을 나르는 일보다 사무실에서 정확한 문서를 작성해 많은 이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의 중요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월드프렌즈코리아는 통합 브랜드로 운영하는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이다. 2009년 분산돼 있던 각 부처의 해외봉사단사업을 통합하며 등장했다. 지금까지 약 2만 명의 해외봉사단원이 개발도상국에 파견돼 현지주민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했다. 정부는 꾸준히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더욱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교육훈련 공통 프로그램 개발, 해외사무소·인프라 공유 및 확충, 귀국 단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해외봉사 참가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이카의 박대원 이사장은 "봉사에 나서는 한국 젊은이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해외봉사단에 참여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영 코리안"이라고 말했다. G

글 · 조용탁 기자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 www.ggi.go.kr
월드잡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벤츠 코리아

벤츠 어드밴스드 디자인스튜디오 이일환 센터장은 차세대 벤츠 디자인의 새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꼽힌다.

"좋아하는 일 찾아 죽도록 매달려라"

벤츠 CLS·M클래스 디자인 이끌어… "끈기 필요한 디자인, 한국인에게 딱 맞죠"

메르세데스 벤츠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기업이자 첫손 꼽힐 만한 브랜드파워를 자랑한다. 유서 깊은 자동차기업 벤츠의 디자인은 독일 본사와 미국 캘리포니아 두 곳에서 주도한다. 지금 미국의 벤츠 어드밴스드 디자인스튜디오를 이끄는 동양인 최초이자 벤츠 역대 최연소 센터장은 한국인 이일환씨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었다"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한다.

"자신과 싸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일환(40) 벤츠 어드밴스드 디자인스튜디오 센터장은 2002년 벤츠에 입사했다. 유수 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이너라는 기쁨은 잠시였다. 입사 후 4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E클래스를 비롯한 벤츠의 주요 모델 디자인 경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 입사 당시 가득했던 자신감은 사라졌다.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주위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이 센터장은 "그만두기 전까지 기회는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노력했다.

"항상 필기도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식사할 때, 심지어 샤워하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계속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도전했습니다. 힘들게 버티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2006년 9월 벤츠는 2세대 CL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 세계 벤츠 디자이너가 모두 참여하는 경쟁이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디자인은 50장. 여기에 이 센터장의 작품도 들어있었다. 심사를 거칠 때마다 탈락하는 디자이너가 나왔다. 6개월이 지날 무렵 남은 팀은 3곳뿐이었다.

"최종 심사는 벤츠 독일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강단 바로 앞에는 디터 제체 벤츠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앉아 있었지요. 제가 제 작품의 디자인 개념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사진의 심사투표 결과 제 디자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죠."

그가 디자인한 CLS는 벤츠 내에서도 호평받았다. 이어 벤츠의 SUV 모델인 M클래스에도 그의 디자인이 채택됐다. 이후 그는 차세대 벤츠 디자인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말을 듣는다. 실제로 이후 이 센터장이 제안한 디자인은 2009년 제네바모터쇼에서 발표한 벤츠의 컨셉트카 F800으로 형상화됐다.

벤츠 DNA 찾아낸 후 미래 디자인 추구

그는 2010년 LA모터쇼에서 화제가 된 바이오메 컨셉트카 디자인에도 참여했다. 2012년 LA모터쇼에서 주목받은 벤츠의 컨셉트카 G포스도 그의 영향을 받은 모델이다. 컨셉트카는 브랜드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가 벤츠의 다음 세대 디자인을 그려나간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그는 벤츠의 디자인을 전통·혁신·미래 세 요소의 집합체라고 해석한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벤츠의 지난 모델들을 꼼꼼히 살피며 고유의 DNA를 찾아 나섰다. 전통의 틀 안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벤츠 디자인의 핵심이다. 그의 이런 노력과 열정은 마침 혁신적 변화를 원하던 벤츠 경영진의 생각과 맞아떨어졌다.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을 재해석한 그의 작품을 이사회에서 평가한 배경이다.

그가 올린 이 같은 성과는 벤츠 본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0년 4월 벤츠 본사는 그를 임원급인 어드벤스드 스튜디오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했다. 동양인 최초이자 벤츠 역대 최연소 센터장에 오른 것이다. 그 성공 배경을 묻자 그는 "좋아하는 일에 죽도록 매달렸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릴 적부터 차가 너무 좋았어요. 크레용이나 볼펜을 손에 잡으면 벽이든 마루든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니 다섯 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각형 상자 모양에 바퀴를 그려 넣은 자동차 그림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한 기억도 있습니다. 몇 시간씩 자동차만 그리며 놀고는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나는 자동차를 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인생의 확고한 목표가 있던 셈이지요."

그는 중·고교 시절 착실히 유학을 준비했다. 디자인과 영어공부를 병행했다. 미국 대학입학시험도 따로 준비했다. 힘들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꼭 가야 할 길이기에 참고 견뎠다.

그는 미국 동부에 있는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디자인의 기초를 닦은 그는 2년 후 미국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스쿨인 패서디나아트스쿨(Art Center College of Design Pasadena)에 입학했다.

"디자인은 끈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노력하며 버티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 재능의 한계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요. 다만 더 정성을 들인 디자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고민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만큼 자신을 희생했다는 뜻이지요. 이런 열정이야말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하고, 더 시간 쓴 그림만 성공

그는 패서디나아트스쿨에서 자동차 디자인 전공자 가운데 주목받는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졸업을 앞두고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폴크스바겐 디자인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학교로 돌아온 그에게 여러 자동차회사에서 입사제의가 왔다. 그는 벤츠를 선택했다.

그는 디자이너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죠. 꿈을 크게 갖고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마세요. 노력하는 이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G

글·조용탁 기자

이일환 센터장이 디자인한 벤츠 CLS 350.

젊은이여, '왜'라는 호기심 가져라

9년간 20여 종 혁신적 로봇 개발… 미 로봇산업 미래 이끌 인물로 평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운용하는 나라다. 군사용 무인 로봇부터 인명구조용 특수 로봇까지 모든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했다. 이런 미국에서 정교하고 혁신적인 로봇으로 주목받는 젊은 한국인이 있다. 미국 버지니아공대의 데니스 홍 교수다.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완벽한 재난구조용 로봇 개발에 몰두하는 그는 미국 로봇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물로 꼽힌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의 데니스 홍(홍원서·41) 교수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로봇 과학자 중 한 명이다. 홍 교수가 이끄는 로멜라(RoMeLa, Robotics & Mechanisms Laboratory) 팀은 지난 9년 동안 뱀·거미·인간의 모습을 한 20여 가지 로봇을 개발했다. 대표적 로봇으로는 미 해군 소방용 로봇 사피르와 타임지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발명품 휴머노이드 찰리 등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도 그의 작품이다.

최근 홍 교수는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구조용 로봇 개발사업에도 참여했다. 원전 사고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벌일 수 있는 로봇 개발이 목표다.

"로봇이 사고 현장까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가야 합니다. 차에서 내린 다음에는 다양한 장애물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목표 건물에 도착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밸브를 돌려 가스 유출을 막은 다음 굴착기로 벽을 뚫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로봇 개발이 과제입니다."

일곱 살 때 영화 〈스타워즈〉 보며 과학자 꿈

DARPA의 로봇 개발사업에는 홍 교수팀을 포함해 모두 7개 팀이 참여했다. DARPA의 과제에 대해 홍 교수는 현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는 오히려 한 단계 앞선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인간의 근육과 흡사한 새로운 소재를 적용해 로봇의 움직임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전기 모터뿐만 아니라 공기 압력으로 손가락 관절을 움직여 더욱 섬세한 조작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로봇을 만들어왔다. 반드시 성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재난구조용 로봇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홍 교수가 이처럼 세계적 로봇 과학자로 성장한 데는 영화 〈스타워즈〉의 영향이 컸다.

"일곱 살 때였습니다. 〈스타워즈〉를 처음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로봇과 우주선이 너무 신기해 넋을 잃고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C-3PO와 R2-D2를 보며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 과학자가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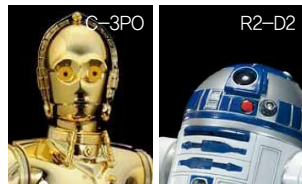
그는 힘든 일을 척척 해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어린 홍 교수의 꿈은 가족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강했던 홍 교수는 라디오나 믹서, 심지어 TV까지 닥치는 대로 뜯어보고는 했다. 이런 홍 교수를 부모님은 혼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줬다. 스스로 궁금증을 풀려는 좋은 자세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도 과학자였기에 저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던 듯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아들을 같은 방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홍 교수의 아버지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담당 부소장, 인하대 교수,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역임한 홍용식 박사다.

홍 교수는 로봇 과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다니던 중 유학을 결심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지만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했다. 미국에서 위스콘신 주립대와 퍼듀 공대를 거쳐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각광받는 과학자 홍 교수에게도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다.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로 갓 임용됐던 30대 초반 시절이다. 그는 당시에도 재능 있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로봇 연구팀을 꾸렸다. 의욕은 넘쳤지만 곧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다. 연구를 의뢰하는 기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연구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을 믿고 고생하던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대학교수가 되고 나서 처음 2년 반이 가장 힘들었다. 공들여 준비한 제안서가 하나 둘 퇴짜맞는 모습에 속이 상해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왜 거절당했는지 다시 차분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데니스 홍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로봇 스트라이더가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장소를 탐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안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는 남은 연구비를 모두 털어 시제품을 제작했다. 그리고 시제품을 바탕으로 다시 제안서를 만들어 보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실제 제품은 제가 상상했던 제품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왜 기업이 제안서를 돌려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로봇 과학자와 교류… 미국 대학에 '휴보' 소개

기업의 지원이 늘자 홍 교수는 버지니아공대 내에 로멜라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로멜라는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로봇을 연이어 발표하며 미국 내에서 로봇 전문 연구소로 자리를 잡았다. 로멜라의 위상이 높아지자 한국의 로봇 과학자들과 교류도 늘기 시작했다. 실례로 DARPA 프로젝트에서 홍 교수가 만드는 로봇의 손과 팔은 한국기업인 로보티즈가 제작한다. KAIST 과학자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KAIST의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가장 먼저 수입해 미국 대학에 소개한 인물이 바로 홍 교수다.

그는 한국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 간 협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홍 교수 팀에서 제작하는 로봇의 인공지능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담당한다.

"한국 대학들은 각기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모으면 더욱 혁신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요. 미국에서는 공동과제를 함께 수행하며 연구개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홍 교수는 한국의 현재 로봇 기술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과학도가 많은 점도 한국 로봇의 미래가 밝은 이유라고 홍 교수는 말한다. 그는 로봇 과학자를 꿈꾸는 한국 학생들에게 "항상 왜 그럴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G

글·손용석 (JTBC 기자)

"오랫동안 즐거움 느낄 일 발견해야"

하버드법대 최초 아시아 여성 종신교수… 법과 예술·문화 융합해 영역 확장

석지영 미국 하버드법대 교수에게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여럿 따라 붙는다. 첫 동아시아계 종신교수, 첫 아시아 여성교수, 첫 한인교수 등이 그것이다. 그의 강의는 세계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대에서도 '창조적이고 탁월한 강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석 교수는 해외 무대를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롤모델이다. 석 교수에게 해외 무대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했다.

한국을 방문한 석지영 교수가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자서전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출판기자회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석지영(40·미국명 지니 석) 교수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청년들을 향해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 성취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불완전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며 "완벽한 삶은 없으며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대한민국 청년이 롤모델로 삼는 석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했다. "제 인생을 성공사례로 꼽기보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했으면 합니다. 최고 수준에 오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해야 '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면서 오랫동안 즐거움을 느낄 수 대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의 이런 인생철학은 역경 많은 유년기를 극복하면서 형성됐다.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을 그는 독서로 달랬다. 어머니를 따라 매일 찾아간 동네 도서관에서 그는 읽고 싶은 책을 찾아보며 사고의 폭을 넓혔다. 미국사회의 이방인으로서 언어의 한계도 이때 극복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필요한 자질은 혁신적 생각

"책을 읽을 줄 알게 되면서 미국생활에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와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도 같은 책을 읽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한국어를 갑작스레 쓰지 못하게 된 환경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낯선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한때 발레리나를 꿈꾸기도 했다. 발레 무용수인 이모의 영향을 받아 미국발레학교(The School of American Ballet)에 입학했다. 학교 측은 석 교수가 발레에 소질을 보이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프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연습에 매진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공부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부모님의 뜻에 따라 발레를 포기했다. 발레를 그만둔 뒤에는 하루 6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해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진학했다.

"발레를 포기하는 상황이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마주한 낙담의 순간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아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그 후 피아노에 관심이 생겼고, 성인으로 자라면서 문학과 법을 탐미하게 됐습니다."

그는 미국 예일대에서 프랑스문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땄다. 그러나 문학도의 길을 걷는 대신 하버드법대로 진로를 변경하는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전공을 과감하게 바꾼 데 대해 석 교수는 "인생은 길기도 하지만 짧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학에 관심은 있었지만 글쓰기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마음을 잡아 끄는 대상이 나타난다면 방향을 바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물 있다면 극복할 때까지 연습하라

석 교수가 예술과 문화에 보였던 관심은 법에 융합돼 나타났다. 그는 논문 '법, 문화, 그리고 패션의 경제학'을 통해 패션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에서 출간한 〈법의 재발견(At home in the law)〉은 2010년 미국 법·사회협회에서 '올해 최고의 법률서적'으로 선정됐다. 그는 이 책으로 미국에서 뛰어난 법률서적에 수여하는 허버트 제이콥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하버드법대에 '공연예술과 법'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탄생시켰다.

"글로벌 무대에서 필요한 자질을 꼽자면 혁신적 생각입니다. 주어진 구조와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양인은 위계질서와 훈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장자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한국인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뛰어넘어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석 교수의 하버드대 종신교수 임명은 미국 한인사회와 한국에서 화제를 낳았다. 2011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선정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국내에서 자서전을 발간했다. 석 교수는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나가 놀아라"라고 강조한다.

어릴 적 발레를 배운 석지영 교수의 예술적 감성은 법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신교수에 임명된 이후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주로 제 삶과 경험에 관한 질문들이었죠. 한국 청년들은 이미 높은 성취 능력을 지녔습니다. 한국인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에 탁월한 수준의 성취를 이뤄 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기보다 인생을 즐기고 성취하세요."

석 교수는 미국에서 자란 자신과 글로벌 무대로 나가려는 한국청년들의 조건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해외 무대에 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무대에 선다는 것은 다른 문화와 관습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교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벗어나 장애물이 가득한 불편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극복할 때까지 연습하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돼있어야 합니다."

교수의 입장에서, 인생의 선배로서 석 교수는 '즐거운 배움'을 깨우칠 것을 조언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공부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자 과정입니다. 내면을 살펴보고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공부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며 재미있죠.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공부하는 희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파묻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익히는 데 그치지 말고 앞으로 변화할 세상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겁게 배우세요."

글·김슬기 기자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자리잡은 임동혁 씨. 어느새 30세가 됐다. 그는 "평생 연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고난 재능보다 피나는 노력 더 중요"

24세에 세계 3대 콩쿠르 석권… 음악계 잘못된 관행에 거침없는 쓴소리도

임동혁의 콩쿠르 수상경력은 화려하다. 국제 쇼팽 콩쿠르 3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4위, 여기에 200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 거부까지…. 그는 놀라운 피아노 연주 실력을 자랑하며 화제와 이슈를 만들어온 글로벌 음악인이다. 임씨는 "음악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각오가 필요하다"고 음악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충고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30)은 글로벌 예술인이다. 그의 활발한 음악활동은 미국·유럽·아시아 등 대륙을 넘나든다. 세계를 향한 그의 도전은 나이 열 살 때인 1994년 시작됐다. 일곱 살에 피아노를 처음 배운 임씨가 한국의 주요 대회에서 상을 휩쓸자 부모는 큰 결단을 내렸다. 당시 대기업에 다니던 임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러시아 근무를 자원한 것이다. 임씨 가족이 모스크바에서 살게 된 배경이다.

그의 재능은 러시아에서 꽃을 피운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청소년 콩쿠르에서 잇달아 입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열네 살 때 그는 모스크바국립음악원에 입학한다. 이는 이 음악원 역대 최연소 입학기록이다. 이곳에서 그는 가브릴로프·부닌 등을 길러낸 명교수 레프 나우모프(Lev Naumov)를 사사했다. 나우모프는 "동혁은 황금손을 가진 연주자"라며 애지중지하며 그를 가르쳤다. 임씨도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연습에 매달리며 실력을 키워갔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나우모프 선생님에게 배울 때가 내 음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기였다. 음악가로서 발전을 이룬 시기"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 거부 파문

임씨의 연주 실력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10대 후반부터 주요 국제 콩쿠르를 휩쓸기 시작했다. 2001년 열 여덟의 나이에 출전한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를 시작으로 국제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최연소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솔로리사이틀상·오케스트라상·프랑스작곡가해석상·파리음악원학생상·마담가비파스키에상 등 5개 부문을 거머쥐었다. 임씨는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를 한 최초의 한국 음악인이기도 하다.

2003년에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하지만 그는 뜻밖에 수상을 거부하며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대회가 시작된 1938년 이래 처음 발생한 수상거부 사태였다. 임씨는 "수준 낮은 연주를 했음에도 스승을 심사위원장으로 둔 참가자가 2위에 입상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수상 거부 파장이 커지자 향후 임씨가 국제 음악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임씨는 2005년 제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2007년 6월 그는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했다. 이로써 그는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러시아의 전설적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1955년 쇼팽 콩쿠르 2위, 195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위, 1962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에 차례로 입상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때도 임씨의 거침없는 언행은 음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연주자들의 기량은 1류인데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3류"라며 "당분간 연주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콩쿠르 심사제도를 비판했다.

그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당당하고 거침없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임씨는 클래식 음악계의 관행에 아픈 질문을 던져온 인물이다. 인맥이나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 소리를 하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임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음악인도 나타났다. 대표적 인물이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다. 그 역시 클래식 음악계의 관행에 꾸준히 비판을 가해온 인물이다.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아르헤리치는 임씨의 재능을 아끼고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후원하고 있다.

아르헤리치는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임동혁을 초청했다. EMI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음반 시리즈에도 그를 적극 추천했다. EMI클래식은 파격적 조건으로 임씨의 데뷔 음반을 출시했다. 임씨는 이 음반으로 황금디아파종상을 수상하며 EMI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출시한 음반마다 수상 이어져 실력 입증

당시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음반이 발매된 4명의 연주자 중 임씨만이 유일하게 2집을 냈다. 그의 두 번째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임씨는 한국 음악인들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어려서 러시아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충분히 세계무대에 설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음악계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후배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외로운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갖가지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며 노력해야 합니다. 클래식 음악인의 삶은 보기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재능에 성공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 힘으로 견뎌야죠. 더러 운도 작용합니다. 음악을 시작하는 어린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노력입니다." G

글·조용탁 기자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줄곧 클래식 음악계에서 바른 소리를 내온 임동혁 씨를 앞장서서 지원하는 예술인이다.

박지우 도성희 이태호

전민규 기자

“다녀온 사람만 1석3조 묘미 알죠”

어학·실무 익히고 문화 다양성 체험… 가능성 열어줄 유연한 사고 큰 수확

청년시절의 해외취업 경험은 소중하다. 세계 무대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녀온 세 명의 대학생은 두려움 없이 해외 도전에 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쌓았다. 어학실력도 중요하지만 일을 대하는 자신의 마인드와 프로 의식이 중요하다는 깨달음도 같은 맥락이다.

참석자 박지우(25) 홍익대 교육학과 4년
도성희(23)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4년
이태호(27)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4년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계기는?

이 인턴십을 떠나기 전부터 외식업에 관심이 많았다. 2008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호스피털리티(서비스 산업) 과정을 수료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관련 인턴십을 하며 그 꿈을 실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내보다 해외가 외식문화 변화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 국외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정부해외인턴사업제도를 알게 됐고, 외식분야 제2기 대상자로 뽑혀 싱가포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도 전공이 글로벌통상학과다. 무역을 공부하다 보니 어느 나라든 해당 국가에 직접 뛰어들어 무역환경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인터넷에서 해외 일자리를 찾던 중 정부해외인턴사업 사이트(www.ggi.go.kr)를 발견했다. 16개의 프로그램 중 희망 직무인 무역과 연관된 인턴십 프로그램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해외 한인기업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 식품기업에서 일했다.

박 2011년도에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UBC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교육학 전공을 살려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UBC에서 인턴십으로 교사 업무를 지원한 학생은 내가 처음이었다. 학교는 내 의견을 존중해 공립 초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

이 호주에서 따 놓은 바텐더 관련 자격증 덕분에 싱가포르 풀러튼베이 호텔에 채용됐다. 싱가포르인을 비롯해 폴란드·필리핀·대만·중국 등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업무에서 직접 실용영어를 익힌 것도 예상 밖의 소득이었다.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고 서빙을 하면서 실질적인 호텔문화도 배웠다. 5성급 호텔인 만큼 유명인사를 대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익힐 수 있었다.

도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유통되는 생막걸리를 홍보하는 일을 맡았다. 막걸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짜고 직접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돼 부담스러웠지만 일반 인턴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일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 애착이 갔다. 한인회사였지만 전 직원 중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인이었다. 말레이계·인도계·중국계 말레이시아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고유 문화를 배우고 익힌 것도 유익했다.

박 공립 초등학교 교사를 돕는 일을 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의 수업에 투입돼 하루에 4~5개 수업을 고정적으로 보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칠 미래의 교사로서 소수가 존중받는 문화를 경험했다"

박지우(25) 홍익대 교육학과 4년

"막걸리를 홍보하면서 한국 브랜드를 알린다는 자부심에 뿌듯했다"

도성희(23)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4년

"서비스 마인드와 프로 의식이 중요함을 배웠다"

이태호(27)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4년

조했다. 대부분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자연·미술·과학·체육 등 다른 과목도 보조 지도했다. 그 외의 시간에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에 참여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가르쳤다. 보조교사였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인턴십 끝 무렵에는 혼자 수업을 진행했다.

보조교사로 실력 인정받아 마지막엔 혼자수업

해외 인턴십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싱가포르의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쉬는 날이면 〈미슐랭가이드〉에 나오는 스타 셰프들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맛봤다. 많은 이가 해외취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언어를 꼽는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말레이시아인이나 화교들은 정말 단순하게 주어·동사·목적어만으로 영어를 구사한다. 그런데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임했다. 영어 실력보다 개인의 서비스 마인드와 프로 의식이 중요함을 배웠다. 해외에 직접 나가보지 않았다면 깨칠 수 없는 생각이었다.

도 해외에서 일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된다. 막걸리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서 '내가 고객이라면 정말 살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한국 주류에 관심을 가질까' 하고 늘 생각했다. 한인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금주국가다. 현지 분위기상 술을 홍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막걸리를 과연 얼마나 팔 수 있을지 처음에는 고민스러웠다. 음식박람회에서 막걸리 12상자 판매를 목표로 한복을 입고 홍보에 나섰다. 한국 교민들에게만 팔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스 방문객 중 외국인이 80퍼센트를 차지했다. 막걸리가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대한민국의 전통 술임을 아낌없이 알렸다. 한국 브랜드를 알린다는 자부심이 일었다.

박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됐다. 캐나다는 대표적 다문화국가인 만큼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는 한국인으로서 배울 점이 많았다. 캐나다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인종은 물론 구사하는 영어 수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다문화를 염두에 두고 모든 언행에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 소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혼혈이라도 여전히 백인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남아 있지 않나?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꿈나무를 가르칠 교사 지망생으로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다. 소수가 존중받는 문화를 몸소 경험했다.

국내에서의 직무 체험과 무엇이 달랐나?

도 청년들은 '실무를 경험하고 싶어' 인턴십에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턴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무와 거리가 멀었다. 중요한 업무가 아닌 워드 작업이나 복사 같은 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 인턴십은 달랐다. 직접 회의를 주관하기도 하고, 회사를 대표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일도 잦았다. 막걸리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내 경우가 그러하다.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레스토랑과 식당에 가서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고, 회사가 흔쾌히 수락해 직접 판매에 나섰다. 광고를 손수 만들어 말레이시아 교민잡지에 실은 적도 있다. '인턴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라'고 격려해주는 한인회사가 있었기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었다. 외국임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박 우리 학교에서 해외 공립 초등학교 인턴십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교사 지망생들은 대부분 교환학생도 나가지 않고 임용시험 준비만 한다. 그런 점에서 내 경우는 이례적 도전이었다. 국내 교생실습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창의적 수업방식을 시도했다. 캐나다의 공립학교는 아시아에서 온 여대생인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 다문화국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한다. 책상과 문이 없는 교실에 동그랗게 둘러앉은 학생들에게 체험형 수업방식을 적용했다. 산수를 가르치기 위해 은행놀이를 하고, 칠판에 쓰기보다 움직이면서 몸으로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경험했다. 교사가 온전한 권한을 갖고 모든 과목에서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희망 벗어난 업무 맡아 나를 시험하는 기회 삼아

해외근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이 싱가포르에서 외식 서비스의 진수를 엿봤다. 국내에도 '파인다이닝(Fine Dining)'으로 분류되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외국에서 직접 보고 느꼈기에 국내 외식 종사자로 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레스토랑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반드시 해외에서 취업해야만 글로벌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내에 많은 외국인이 유입된 상태다. 그들을 상대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외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갖고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취향에 맞춘 외식 서비스를 펼쳐보고 싶다.

도 해외 인턴십은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원하던 식품유통 무역회사와 연결되었지만 내게 주어진 업무는 마케팅과 판매업무였다. 무역 실무를 배우기를 원했던 입장에서 다소 예상에서 벗어난 일이었지만 나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내 인턴은 처음부터 일할 부서나 분야를 정한 다음 가지 않나? 그에 반해 해외 인턴십은 실무 위주의 자기주도적 업무를 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무역도 크게 보면 해외 마케팅이라는 생각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케팅 분야에 새로 관심을 갖게 됐다.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

이 반드시 해외취업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해외에서 일해보기를 추천한다. 인턴십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뮬러1(F1)'대회다. F1 대회를 맞아 호텔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각종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즐거워하는 고객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벤트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적 사고와 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해외근무를 꼭 해보기를 권한다.

박 국내에서만 교사 준비를 하다 보니 그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 교사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내 임용 자격증으로 해외 한인국제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같이 인턴십을 했던 친구들 중에는 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졸업 전임에도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신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근무를 제의하는 곳이 해외 무대다.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보기에 해외 무대만큼 새로운 곳은 없으리라 본다. G

사회·정리 : 김슬기 기자

정부해외인턴사업 글로벌현장학습에 참여한 박지수 씨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학생과 나란히 서 있다.

비전과 자신감 무장하고 세계로 가라

청년들 일할 기회 많은 해외 무대… 도전하기 전 전문성 갖춰야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점차 늘고 있다. 국력 신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그 문이 더욱 넓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12월 발대식을 가진 정부해외인턴사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글로벌 무대로 눈을 돌려 과감하게 도전하라. 이 사업 멘토로 나선 기업가,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들은 글로벌 활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어학·시장정보·전문성 3가지 조건 갖춰라

백상현 코비존 대표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역업처럼 매력적인 직업도 드물 것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제품의 신뢰도가 더욱 상승했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덩달아 우리 제품의 수출 여건도 어느 때보다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해외 마케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학능력입니다. 정보 수집이나 해외 바이어 발굴, 원활한 무역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세계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 분석해 특정 국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는 품목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품목을 팔아야 할지 신중히 선택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적어도 이 세가지의 전문성을 갖춘다면 기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전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세계로 나갑시다.

좌절 않고 도전하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이나경 SK에너지 상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때는 차별받는 흑인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한때는 시골의 촌스러운 '범생이'일 뿐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한때는 문제 많은 대학 자퇴생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꿈을 가지고 늘 그 꿈에 도전하며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다치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면 여러분은 그저 동양에서 온 한 명의 학생에 불과하겠지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꿈을 향해 용기 있는 도전을 지속한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의 응원군과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학창시절, 남자 선배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고.

인턴 떠나기 전 무엇을 할지 계획하라

조기창 코트라 인천사무소장

최근 3년간 요르단 암만무역관장으로 근무하면서 20여 명의 청년인턴을 받았습니다. 인턴 기간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개월이었습니다. 그 중 10여 명의 청년이 귀국해 국내 유수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60~70퍼센트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무대를 꿈꾸고 해외로 인턴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세 가지 준비를 당부합니다.

첫째, 출국 전 파견 대상 국가와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십시오. 코트라가 운영하는 글로벌윈도(www.globalwindow.org)를 방문하면 최신 국가정보를 얻을 수 있고, 파견 대상 기관(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와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파견됐던 경험자를 접촉해 인턴 기간 중 겪게 될 정보를 미리 취득하십시오.

둘째, 반드시 인턴 기간 중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막연히 떠났다가는 별 할 일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맙니다. 파견 대상 기관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휴일 활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견 대상 국가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볼 것인지도 미리 꼼꼼하게 계획해 일정을 짜십시오.

셋째, 인턴에서 얻은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인턴은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을 자신의 앞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 대상 기관 직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선배들의 많은 조언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면 글로벌 무대를 향한 꿈이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역량 길러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라

고산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세계의 문화, 사회현상, 가치로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현재에 발을 디딘 채 과거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열릴 미래 세상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내 활동 여건이 마땅치 않아 해외 무대에서 길을 찾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뛰어넘어 박태환·김연아 선수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진정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해 나갈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전과 충만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세계로 나가십시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멋진 것들을 만들어 내십시오. 한국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후배들에게도 그 내용을 전파하십시오. 한국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더 큰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G

정리·김슬기 기자

도전자 모두 승자 되는 진정한 올림픽

29일 오후 6시 용평돔서 개막식… 8일간 7개 종목 1개 시범경기서 '함께하는 도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한 올림픽 성화가 전국을 돌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열리는 전 세계 지적장애인의 잔치다. 선수와 가족뿐 아니라 관람객들까지도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모두의 축제가 1월 29일 마침내 막을 올린다.

지난 1월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채화식 참가자인 김민영(23·발달장애 3급, 경기도 부천시) 씨. 중학교 때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지능이 정상인 그는 여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수영 선수로, 겨울에는 알파인스키 선수로 활동해왔다. 2011년 스페셜올림픽 동아시아위원회 위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도 참여했다. 지금은 집 근처 중증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한다.

지난 1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화봉송 국내도착 환영 및 출발식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던 안진용(25·지적장애 2급, 대구) 씨. 안씨의 부모는 장애아라서 위축될까봐 안씨가 여섯 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다. 안씨는 마지못해 시작했던 수영의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해 2011 그리스에서 열린 하계스페셜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했다. 아직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영장에 다녀야 하는 장애인이지만, 그는 분명 큰일을 해낸 것이다.

〈레인맨〉 〈아이엠 샘〉 〈내 이름은 칸〉 〈말아톤〉 등과 같이 영화 속에서나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이웃 나라에 많은 샘과 칸, 얼룩말 엉덩이를 따라 다니던 초원이가 있다.

이번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함께하는 도전(TOGETHER WE CA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과 도전정신을 격려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그 스페셜올림픽이 1월 29일 오후 6시 강원도 평창의 용평돔에서 개최되는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펼쳐진다.

1월 23일 서울광장을 출발한 성화 봉송 주자들은 2개 노선으로 나뉘어 전국을 돌며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두 개의 성화는 개막식 전날 평창에 도착해 하나로 합쳐진 뒤 개막식을 장식하는 점화식을 갖는다.

중앙포토

지난 1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화봉송 국내도착 환영 및 출발식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이 안진용 선수와 함께 성화를 옮기고 있다.

4~8위 선수에게도 격려의 리본 수여

이번 스페셜올림픽에서는 110개국에서 온 선수와 임원, 선수가족, 취재진 등 1만1,000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스노보드·스노슈잉·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피겨스케이팅·플로어하키 등 7개 동계 종목(55개 세부종목)과 1개 시범경기(플로어볼)에서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

같은 장애인들만의 올림픽이지만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서는 기록과 순위경쟁을 한다. 하지만 스페셜올림픽에서는 금·은·동메달 외에 4위~8위 선수들을 격려하는 리본을 수여하는 것 또한 독특하다. 도전자 모두 승자가 되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특별 올림픽'인 셈이다.

스페셜올림픽은 1968년 처음 시작돼 2년마다 동·하계 대회가 번갈아 열린다.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대회다. 동계대회로는 이번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10회째를 맞게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동·하계를 통틀어 일본·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개최국이 됐다.

1968년 미국의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의 제안에 의해 미국 시카고에서 첫 대회가 열렸다. 공식 올림픽, 장애인올림픽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대회 중 하나다.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요**
> - **기 간 :** 1월 29일~2월 5일
> - **장 소 :** 강원도 평창 일원(알펜시아·용평리조트), 강릉 일원(빙상경기장 등)
> - **참가 규모 :** 110개국 1만1,000여 명
> - **경기 종목 :** 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스노보드·스노슈잉·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피겨스케이트·플로어하키 등 7종목(55개 세부종목), 시범경기 1종목(플로어볼)

글로벌개발서밋 등 부대행사에도 관심

스페셜올림픽은 신체적 능력을 자랑하는 공식 올림픽과 취지와 개최 목적이 다르다. 그런 만큼 경기대회와 함께 진행하는 부대행사들이 다양하고 독특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대회의 굵직한 부대행사로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끈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세계적 저명인사들이 참석하는 글로벌개발서밋, 동계스페셜올림픽에 소외돼온 국가들을 초청한 스페셜핸즈, 한국을 알리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꼽을 수 있다. 대회 기간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 많은 이벤트가 대회 전부터 열렸다. 'TOGETHER WE CA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6개월간 진행된 스페셜스카프 행사가 대표적이다. 이 행사가 끝난 12월 31일까지 머플러 뜨개질용 7,500키트가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개막일을 앞두고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가 회수한 스페셜스카프는 6,500여 개가 넘는다. 스페셜스카프는 이번 대회 마스코트인 라(Ra·푸른 반달가슴)·인(In·붉은 양)·바우(Bow·초록 양치기개)의 색상인 파랑·빨강·초록색 실로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한 올 한 올 짜 내려간 정성의 산물이다.

이 스페셜스카프를 두른 세계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설원에서 펼쳐질 영화 이상의 감동 스토리,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지 않은가? G

글·박경아 기자

한눈에 보는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경기 일정

종목	경기장	세부 종목	1월 29일	30일	31일	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알파인스키	용평리조트	슈퍼대회전			예선	결승					
		대회전					예선	결승			
		회전							예선	결승	
크로스컨트리	알펜시아 노르딕센터			선수 평가	예선	50m 결승	2.5km(F) 5km 결승	100m 500m 결승	1km 10km 결승	4X1km 2.5km(C) 결승	
스노보드	알펜시아 리조트	슈퍼대회전							결승		
		대회전			상급결승	초급 결승					
		회전					중·상 결승	초급 결승			
스노슈잉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예선	예선	예선	100m 800m 결승	200m 4X400m 결승	1600m 4X400m 결승	5km 400m 결승	
피겨스케이팅	강릉빙상경기장, 용평돔	싱글	개막식 (용펌돔)	예선	예선	예선	예선	결승			폐막식 (용평동)
		페어			예선			결승			
		아이스댄스			예선			결승			
		연합페어			예선			결승			
		연합아이스댄싱			예선			결승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강릉빙상경기장			예선	예선	500m 1500m 결승	111m 777m 결승	222m 1000m 결승	25m 55m 333m 결승		
플로어하키	강릉생활체육센터,	남자팀		예선	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	결승			
	강릉실내체육관,	여자팀		예선	예선	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	결승		
	관동대체육관	연합팀			예선	예선	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	결승	
플로어볼 (시범경기)	강릉실내체육관			예선	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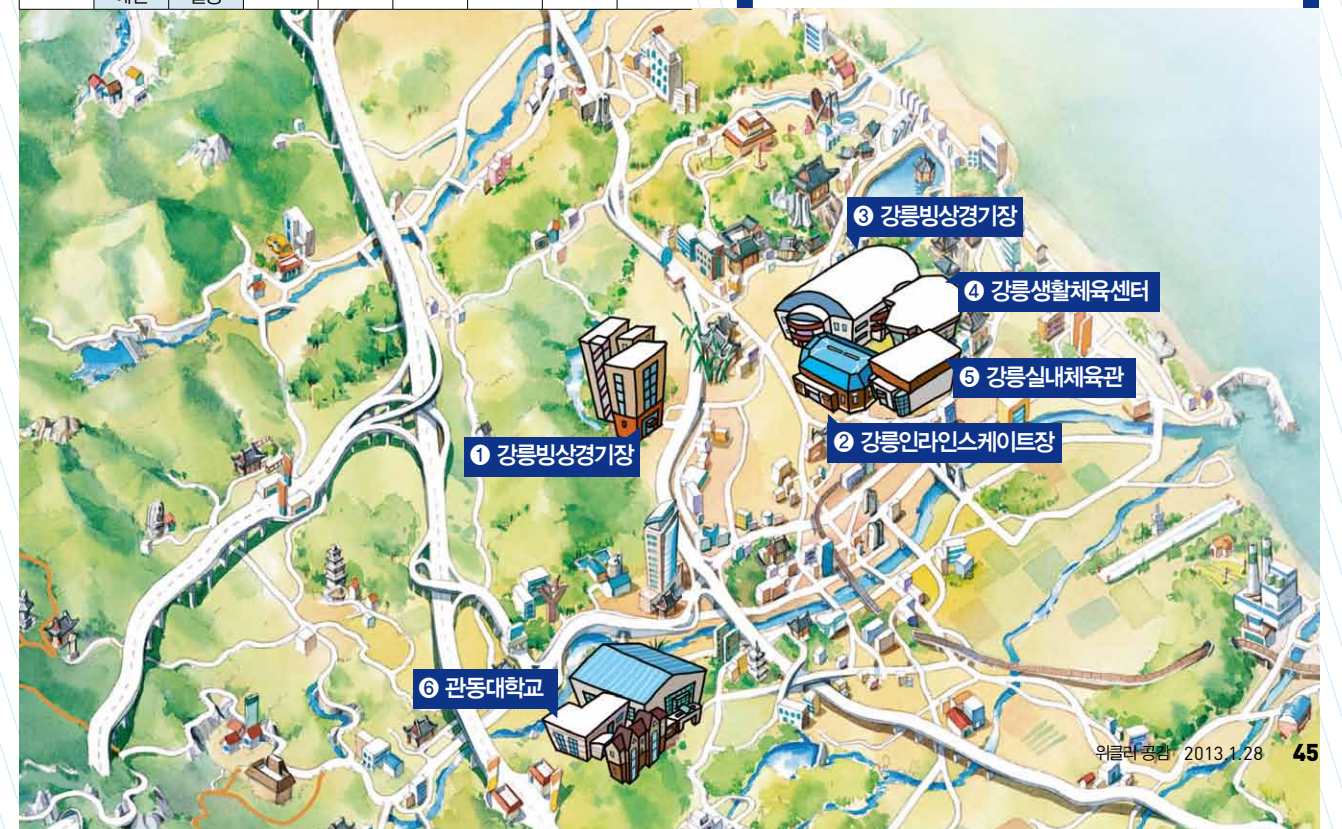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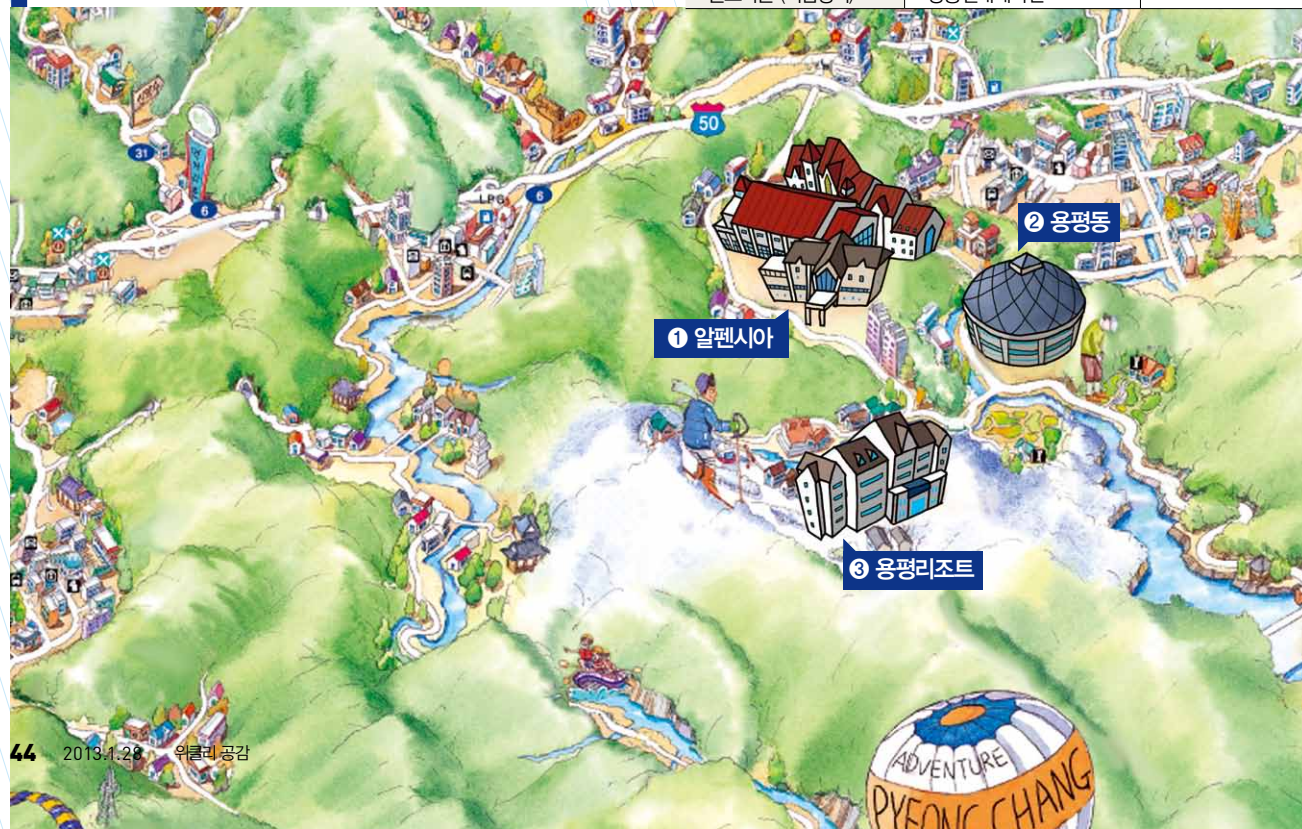
알펜시아 리조트 내 주요 시설 전화번호

- **종합안내센터** 033-339-2200
- **입장권 구매안내** 033-339-2021
- **수송종합상황실** 033-339-2010
- **AD카드 발급센터** 033-339-2013
- **대표단서비스센터** 033-339-7608
- **종합의료센터** 033-339-2015
- **안전상황실** 033-339-7629

평창

1 **알펜시아–** 종합안내센터, 선수촌, 메인 미디어센터, AD카드발급센터, 입장권판매소, 스노보드/스노슈잉/크로스컨트리 경기
2 **용평돔–** 개막식, 폐막식, 피겨스케이팅 경기
3 **용평리조트–** 알파인스키 경기

강릉

1 **강릉원주대학교–** 선수촌
2 **강릉인라인스케이트장–** 미디어센터, AD카드발급센터, 대표단안내센터
3 **강릉빙상경기장–** 입장권판매소,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경기
4 **강릉생활체육센터–** 플로어하키 경기
5 **강릉실내체육관–** 플로어하키/플로어볼 경기
6 **관동대학교체육관–** 선수촌, 선수 건강증진 프로그램, 플로어하키 경기

"제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대표입니다"

스노보드 박정현 선수 아버지 **박덕주** 씨

박정현 선수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 스노보드 종목의 박정현 선수. 올해 25세인 박 선수는 다운증후군을 앓는다. 아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현재 충북에서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박 선수의 아버지 박덕주 씨가 대표선수와 그 부모들, 장애 어린이를 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용기를 주고,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달라며 응원 편지를 썼다.

정현이가 태어나자 의사는 "다운증후군이 확실하니 수유는 안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은 인사로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출생 3개월 무렵 영양제라도 맞춰주고 싶다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의사는 세 살 정도 되면 집에서 감당하기 힘드니 시설로 보내야 할 것이라며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부모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만 번도 더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먹으면 토하는 아이를 데리고 낮에는 집과 병원을 오가고, 밤에는 아이를 업은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잠을 청하기를 1년여….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려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걸을 수만 있으면' 하고 기도하던 때도 있었지만, 아이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 단증도 따고, 인라인스케이트, 스노보드 등 틈틈이 연마한 운동으로 실력발휘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스물다섯 살인 정현이는 가축을 돌보고, 청소·빨래·밥하기 같은 집안일을 돕고, 나무 보일러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도 지겨워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수고로 온 가족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랍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정현이는 우리 집 '행복전도사'입니다.

정현이의 직장은 충북 오창에 있는 곤충체험학습장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 전시장을 청소하고 곤충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카메라맨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보다 낫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출생 당시 벼랑 끝에 매달린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은 당당한 국가대표로 선발된 우리 가족의 행복전도사 정현이! 정현이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진정한 국가대표입니다. 정현이의 건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정현이 파이팅, 국가대표 파이팅!"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요"

크로스컨트리스키 원희선 선수 어머니 **정윤하** 씨

원희선 선수

여고생인 원희선(인천 숭덕여고 1학년) 선수는 이번 스페셜올림픽에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에 출전한다. 그는 여름철에는 수영선수로도 활동하는 만능 스포츠 소녀다. 정신지체장애 3급의 희선이가 '장애인'을 넘어 국가대표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데는 어머니 정윤하 씨의 정성이 큰 힘이 됐다. 혼자 몸으로 세 아이를 키우며 미용사로 일하는 어머니 정씨가 딸과 다른 스페셜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다.

희선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어린 동생들을 상대로 고집을 피우는 아이를 보면서 마냥 화만 냈지요. 화만 내는 엄마, 야단만 맞는 아이…. 우리 모녀 사이는 그렇게 늘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입학 직전에야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나에게, 희선이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원망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고 희선이에게 약속했죠. "엄마는 이제부터 너한테 야단치지 않을 테니 대신 너도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자." 그때부터 우리 모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고립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회로 나가 당당하게 한 사람 몫을 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켰습니다. 운동이라면 장애인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 시작 후 기대하지도 않았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게 됐고, 성격도 밝아지고, 동생들과도 사이 좋게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는 제게 안기더니 "엄마 사랑해. 엄만 내꺼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들려준 "사랑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토록 큰 기쁨을 준 희선이는 제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지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저는 희선이가 계속 운동을 하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훈련에도 한마디 불평 없이 따르는 희선이를 보면서 언젠가 제가 없어도 희선이 혼자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희선이를 장애인 선수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주십시오. 희선이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선발된 '국가대표'입니다. 저는 희선이가 창피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좋은 성적을 거둬 엄마에게 메달을 안겨주는 아이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에는 온 가족이 함께 희선이를 응원하러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들의 응원을 받고 기뻐할 희선이의 웃음이 떠오릅니다.

"원희선!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엄마의 국가대표야"

정리·이윤진 객원 기자

특별한 우리의 친구 박수를 보냅니다

현인아 선수, 자폐성장애 딛고 일반선수와 훈련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지구촌 축제다. 어떠한 역할이든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지적장애인들은 이미 모두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주인공들이다. 스페셜올림픽 무대를 빛내는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오상민 기자

현인아 선수가 의정부빙상장에서 훈련 도중 잠깐 아름다운 미소를 보냈다.

얼음판, 장애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 현인아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지난 1월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빙상장. 스페셜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현인아(16·창동중 2년)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고 빙상 위에 올랐다. 대표팀 합숙훈련은 지난 1월 18일 마무리됐지만 개막 전까지 개별훈련을 하기 위해 서였다. 현 선수는 나이는 적지만 같은 종목 여자선수 중 실력은 '넘버 원'이다.

현 선수는 자폐성장애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일반 선수와 똑같이 훈련받는다. 이곳 빙상장은 일반인과 선수급 스케이터의 이용시간이 구분돼 있다. 현 선수는 처음에는 일반인 이용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50분)에 탔지만, 지난해 초 스페셜올림픽 대표팀 최태현 코치의 추천으로 선수급 훈련시간(새벽과 오후 6시 이후)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일반인 선수들이 현 선수와 함께 스케이트 타기를 꺼렸다. 부상을 입거나 훈련에 지장이 있으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 코치가 다른 선수와 보호자들을 설득했다. 지금은 누구도 현 선수를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듯 적어도 빙상 위에서만큼은 현 선수에게 차별은 더 이상 없다.

그가 처음 스케이트를 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다. 처음 훈련은 좌충우돌이었다. 활주 방향과 반대로 달리거나 라인 안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또 주의력이 산만한 편이어서 담당 코치는 한 가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해 가르쳐야 했다.

기본기 터득은 어려웠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력이 빠르게 성장했다.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5년째 참석해 금메달도 여러 번 목에 걸었다. 2011 아테네 하계스페셜올림픽에서는 롤러스케이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번 스페셜올림픽 목표도 당연히 금메달이다.

스페셜올림픽 개막식 애국가 독창 박모세

1월 2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용평돔에서 열리는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를 사람은 지적장애인 박모세(21·삼육재활학교 3학년) 씨다. 박씨는 주변에서 '신(神)이 살린 아이'로 불린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뇌에 문제가 있어 생존불가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낙태를 권했지만, 어머니 조영애(48) 씨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네 번의 뇌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뇌를 10분의 9 가량 잘라냈다. 다리수술도 두 번 받았다. 의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아기는 우유도 한 번에 몇 방울씩밖에 먹지 못했다. 어머니 조씨는 온갖 정성으로 아기를 보살폈다. 그 덕분에 박씨는 조금씩 살이 붙고 세상에도 차츰 반응했다.

박씨는 다섯 살 때부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귀에 들리는 그대로 입으로 따라 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말이 늘어 일곱 살 때는 처음으로 노래까지 불렀다. 어머니 조씨의 기억에 따르면 들려준 노래의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 불렀다고 한다.

어머니 조씨는 밤낮으로 음악을 들려줬다. 음악을 통해 박씨는 점차 몸의 정상 기능을 하나씩 되찾아 나갔다. 박씨는 현재 지적장애 3급, 시각장애 4급, 지체장애 3급이다. 몸의 오른쪽을 잘 쓰지 못하지만,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것은 물론 듣고 보고 말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지난해 8월 경산에서 열린 한국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개막식에서도 박씨는 애국가를 불렀다. 박씨는 이번 스페셜올림픽 개막무대를 위해 집에서 애국가 반주를 틀어놓고 노래 연습을 한다. 배의 힘을 기르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다.

"다들 내 노래를 듣고 희망과 꿈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박씨의 말이다.

타고난 승부근성으로 장애 극복 임화정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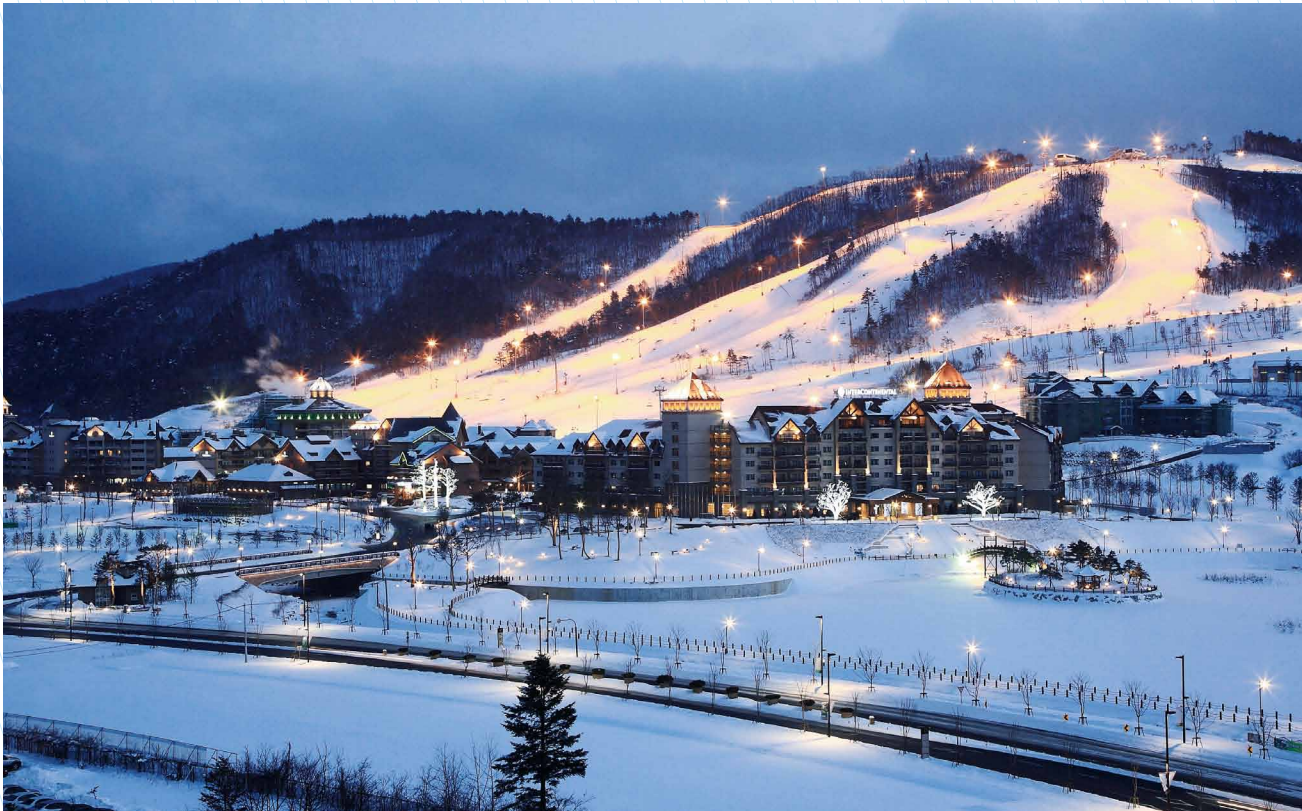
올해 만 서른,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임화정 선수는 강한 체력과 자신감, 승부근성으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임하는 메달 유망주다.

지적장애는 있지만 여느 소녀와 다름 없이 감수성이 한창 예민했던 열여덟 살, 소녀 임화정은 가출했다. 어린 시절부터 임 선수의 가정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간간이 주먹을 휘둘렀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다. 하나뿐인 남동생과도 오래 전 이별했다. 부산지역의 여러 복지시설을 전전하던 그는 열아홉 살에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에 둥지를 틀었다. 못다한 학업을 마치기 위해 부산 혜원학교에 입학한 임 선수는 24세 되던 해 처음 학교에서 운동을 접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지적장애가 있지만 근성이 강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호정(44) 교사가 임 선수에게 사이클을 권했다. 사이클을 타다 몇 차례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 사이클 대표로 활약하면서 금메달 10여 개를 목에 걸었다.

임 선수는 2007년부터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종목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빙판 위에 서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금세 적응했다. 2010년 지적장애인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로 선발됐다.

이번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그에게 특별한 꿈을 품게 했다. 좋은 성적을 거둬 유명해지면 20년 전 헤어진 남동생을 찾는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도 임 선수의 가족 찾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G

글·남창희 객원 기자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는 저개발국 지적장애인들의 소외와 빈곤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그 마음처럼 평창 알펜시아의 야경이 따뜻해 보인다.

선수단 홈스테이로 한국 적응 3박4일

7개국 특별초청, 지적장애인의 유엔총회, 호스트타운 등 프로그램 풍성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경기대회다. 한편으로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각종 공연·전시·학술대회 등도 함께 열리는 '문화올림픽'이기도 하다.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기간에 특히 저개발국가 지적장애인들의 빈곤과 소외, 지적장애인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부여한 따뜻한 부대행사들을 마련했다.

제2 쿨러닝 기대되는 '스페셜핸즈 프로그램'

영화 〈쿨 러닝〉. 1988년 캐나다 캘거리동계올림픽 때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메이카팀의 도전담을 그린 영화다. 당시 자메이카 선수들은 봅슬레이 장비가 없어 플라스틱 욕조를 타고 연습 한다.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눈에 당황하고, 장비부족으로 좌충우돌을 거듭한다. 하지만 도전하는 모습 그 자체가 화제가 되어 '영웅'으로 귀국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실화였기에 더욱 주목받았다.

이번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는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국가들이 많이 참가한다. 우리 정부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가 참가 기회를 제공해 어느 대회보다 풍성하고 훈훈한 대회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이번 스페셜올림픽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적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다는 개최 목적을 내세웠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던 국가들에도 최대한 참가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네팔·몽골·베트남·캄보디아·파키스탄·태국·파푸아뉴기니 등 아태지역 7개국을 '스페셜핸즈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대회에 특별초청했다.

이들 7개국 선수단은 1월 27일 방한해 2월 6일까지 11일간 다른 나라 선수단과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어쩌면 이번 스페셜올림픽에서도 '쿨러닝'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지적장애인 소외 논의하는 '글로벌개발서밋'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유엔총회'로 불리는 '글로벌개발서밋'이 1월 30, 31일 이틀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티모시 슈라이버 스페셜올림픽 회장 등 전 세계 지도자 300여 명이 참가한다. 나경원 조직위원장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IOC위원인 노라 리히텐슈타인 공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부인인 체리 블레어, 무타 켄트 코카콜라 회장,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디켐베 무톰보와 야오밍 등도 함께한다.

글로벌개발서밋은 대회 사상 처음 열리는 행사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장애인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의 악순환 근절'을 주제로 정한 이번 서밋은 행사 이틀째 패널 토의를 가진 뒤 '평창선언'이라는 이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여기에는 지적장애인 스스로 주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 그리고 개별 지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연대로 그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적장애·비장애 청소년 행사 '세계청소년회담'

22개국 109명이 참가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열흘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회담(Global Youth Summit)'도 관심을 끈다. 전 세계 지적장애·비장애 청소년 리더들을 함께 어울리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각국의 지역공동체 대표들이다. 이들은 회담 기간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개선하고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회담은 ▶교육행사(기사작성, 사진편집, 웹 운영 등) ▶토론행사(공동체 형성 전략 세션, 웹 세미나, 글로벌 화상회의 등) ▶체험행사(지역사회 문화·역사 탐방, 세계청소년대회의 리더 역할 등) 등으로 진행된다.

동계스페셜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미소가 아름답다. 2005 나가노동계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모습이다.

세계청소년회담은 지난 2001년 알래스카 동계대회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스페셜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함께 열린다.

선수단 2,930명 참여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스페셜올림픽 참가차 방한하는 선수와 임원들은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경기에 앞서 1월 26~29일 3박4일간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기업체·대학교·수련원·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한다. 107개국 선수와 임원 2,930명이 참여해 우정과 추억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홈스테이와 유사한데 숙박 제공은 물론 개최국인 한국에 미리 적응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52개 참여단체마다 전통문화체험, 스포츠, 공예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단지 '주기만 하는' 행사는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곳곳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주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 씨앗이 발아해 '함께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스페셜올림픽이 따뜻하게 준비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스페셜패스 1장으로 오감을 깨워라

경기 보고 눈썰매… 5곳서 장애·비장애인 어우러진 문화 공연 퍼레이드

1월 29일부터 8일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릉은 볼거리·놀거리·먹거리가 가득한 축제장으로 변한다. 경기장에서 경기 관람과 함께 대표선수들을 응원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주변 관광지 등을 찾아 겨울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기회다.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로벌 겨울 스포츠 축제가 열리는 평창과 강릉,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다.

대관령 목장에서 맛보는 눈 덮인 능선의 아름다움, 눈썰매와 스키의 즐거움, 매콤달콤한 양념장이 어우러진 막국수, 강릉 물회와 겨울바다의 낭만이 있는 정동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의 풍요로운 관광자원들이다. 스페셜올림픽도 관람할 겸 강원도의 겨울 풍광도 즐길 겸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1박2일 코스'를 먼저 상상으로 즐겨보자.

첫날인 1월 31일 오전 7시 서울에서 승용차로 출발하면 2시간 30분쯤 걸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도착한다. 스키 시즌이지만 목요일이어서 주말보다 길이 덜 막힐 듯싶다. 잠시 쉬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스노보딩 대회전 예선 경기를 보고, 점심식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구내식당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오후 1시에는 스노보딩 대회전 결승 경기가 열린다. 금·은·동메달리스트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리본을 수여받은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경기 관람이 끝났다고 스페셜올림픽 입장권인 '스페셜패스'를 버리는 것은 NO~NO!. 단돈 1만원의 스페셜패스 하나면 스페셜올림픽의 모든 경기 관람은 물론 스키를 반값에, 인근 유료 시설을 할인가격 혹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즐기러 알펜시아 스키장으로 GO~GO! 신나게 놀다 보면 금세 저녁이다. 저녁식사로는 인근 대관령면 용산리 등에 늘어선 식당에서 메밀막국수·감자전·민물매운탕 같은 지역 별미 음식을 먹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식사 후에는 알펜시아의 야경과 스페셜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감상하면 된다.

평창 막국수.

'따라하면 후회 없는 1박 2일' 활용을

2일째 오전에는 강릉으로 이동해 스페셜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다. 2월 1일은 강릉실내빙상장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500미터 결승전이 진행되고, 강릉생활체육센터 등에서는 플로어하키 경기가 열린다.

점심은 강릉 시내 맛집에서 즐겨보자. 강릉에서는 초당두부에 잘 익은 배추김치와 느타리버섯·들깨가루 등을 넣어 끓인 초당두부전골, 동해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횟감으로 만든 가자미물회·오징어물회·전복물회가 제격이다.

귀경길에는 대관령목장에 들르는 것도 잊지 말자. 그림같이 아름다운 설경과 양들이 노니는 이색적인 풍광이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다. 스페셜패스를 제시하면 목장 관람도 반값!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렇게 스페셜올림픽 경기 관람부터 주변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따라 하면 후회 없는' 1박 2일 코스를 예시했다. 굳이 스페셜올림픽조직위의 추천 일정을

대관령 양떼목장.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

행사	장소		시간	1월 30일	31일	2월 1일	2일	3일	4일
공연	알펜시아 리조트	야외광장	오전 9~10시	군악대 퍼레이드					
		그랜트볼룸(3층)	오후6~6시30분	콘서트홀 공연 Preview					뮤직텐트 공연 Preview
				발레 & 매직	오페라 갈라	국악한마당	클래식의 밤		뮤지컬 갈라콘서트
		뮤직텐트						MBC 나눔 스페셜 '위대한 탄생'	뮤지컬 갈라콘서트
		콘서트홀	오후 7시30분~9시	발레 & 매직	오페라 갈라	국악한마당	클래식의 밤		
	강릉원주대 해랑문화관			클래식의 밤	국악한마당		하모니의 밤	뮤지컬 갈라콘서트	융복합 퍼포먼스
전시·체험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 로비	오전 11시~오후 7시	• 전시 : 스페셜올림픽 History Gallery, Able Art Gallery • 체험 : 전통도예체험, 뷰티클래스, e스포츠 게임존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	오후 2~5시	• 영화 상영(1월 30일~2월 1일) 〈말아톤〉, 〈레인맨〉, 〈내 이름은 칸〉 등					
	관동대 선수촌		오전 11시~오후 7시	• 전시 : 디지털포토갤러리, Able Art Gallery • 체험 : e스포츠게임존, 위시트리					

* 위 프로그램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열리는 평창송어축제를 찾은 아이들.

따를 필요는 없다. 스페셜올림픽이 열리는 8일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가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연일 이어지고, 그곳만의 풍미는 언제나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는 장애·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들을 연계한 큰 잔치를 준비했다. 스페셜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강릉의 5개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 난타 공연, 국악 공연,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이들 행사에는 국·공립 예술단체와 장애인예술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지적장애인과 대표선수단이 직접 공연에 참여한다.

30일 선수 환영식 후 다양한 문화행사 팡파르

문화행사는 1월 30일 오전 9시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선수 환영식과 국방부 군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로 시작한다. 마술사 이은결과 발레리나 김주원이 펼치는 '발레 & 매직', 강릉오성학교 중창단과 유엔젤보이스의 공연이 포함된 '오페라 갈라' 프로그램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2월 3일 저녁 7시30분 알펜시아 리조트 내 뮤직텐트에서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의 '나눔' 공개방송이 열린다.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가수 김태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지적장애인들이 출연한다.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한 스페셜올림픽, 그곳에 가면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평창스페셜올림픽 최고의 후원사는 코레일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의 열기가 철길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 코레일에 따르면 스페셜올림픽 입장권의 57%인 4만1,000장이 철도역을 통해 판매됐다. 철도청은 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주요 철도역(23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홍보 마케팅을 지원했다. 전국에서 출발하는 특별관광열차를 16회 운행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피트레인도 3회 운행한다. 강릉역에 내린 관람객을 위해서는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한국을 찾은 네덜란드 선수단의 한국문화체험(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위한 레일크루즈 '해랑'도 운영한다.

1만원으로 누리는 스페셜 패스의 즐거움

코레일 스페셜패스 한 장이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반복 관람할 수 있다. 티켓에는 용평 리조트 등 레저시설과, 인근 관광지 입장권 등 20여 종의 할인 쿠폰이 포함돼 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바다열차와 정선레일바이크도 50%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어른 한 명이 쿠폰을 모두 사용하면 15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먹거리와 잠자리 정보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관광〉잠자리/먹거리
평창군청 happy700.or.kr, 문화관광〉여행떠나기
강릉시청 www.gangneung.go.kr, 관광문화〉음식·숙박·쇼핑

폭력 가해자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조사·징계 과정 투명화하고 단체별 징계기준 마련해 '무관용 원칙' 적용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자선수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프로농구 감독이 선수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되기도 하고,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술·담배예절을 가르친다"며 대걸레 자루로 후배를 때려 부상을 입힌 적도 있다. 정부가 체육단체와 함께 스포츠 폭력·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2011년 12월 인천의 A고교 럭비부 학생들이 사흘간이나 등교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이 학교를 집단이탈한 이유는 럭비부 감독교사의 폭행 때문이었다. 이 학교와 해당 학생들에 따르면 럭비부 감독교사는 "시험기간 오전에는 럭비부실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럭비부 학생 4명에게 '엎드려 뻗쳐' 시킨 후 구둣발로 뒷머리를 차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반발해 1, 2학년 럭비부 23명 중 20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은 채 강화도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에 앞서 2011년 1월에는 초등학교 배구감독이 자신이 지도하는 여자 초등학생 배구선수를 성추행한 일도 있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배구지도자 성폭력 처리 결과'에 따르면 광주 B초등학교 배구감독은 "국가대표로 만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 배구선수 5명을 성추행했다. 대한배구협회는 이 감독을 영구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계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일도 잦은 편이다. '기강을 잡고 예의를 가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다. 2007년 4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C대학에서 태권도 품새동아리 소속 2학년생들이 1학년생 20여 명의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렸다. 당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2학년생들은 담배를 피울 때와 술을 마실 때의 예절 등을 가르친다며 돌아가면서 주먹과 대걸레 자루로 1학년생들을 폭행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3대 방향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일 광화문 거리에서 '성폭력·술폭력·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15일 발표한 '스포츠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수들 가운데 구타나 가혹행위 등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28.6퍼센트였다. 성희롱·성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9.5퍼센트나 됐다. 2010년(폭력 51.6퍼센트, 성폭력 26.6퍼센트)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스포츠 폭력을 악화하는 주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꼽혔다.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의 소극적 대처가 첫 번째다. 폭력 근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중적 태도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이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선수 보호, 폭력 예방 등 10대 과제 마련

정부는 체육단체와 합동으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마련해 스포츠 폭력 근절에 나섰다.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은 물론 프로 선수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로 한정돼 있다.

또 직접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확대하고 피해선수에 대한 의료·심리치료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상담 때는 비밀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체육단체별 징계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폭력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권과 징계권을 분리해 단체별 조사단을 구성해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나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각 단체의 폭력 근절 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의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가중치를 확대한다. 평가 결과는 매년 공개해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선수 폭력 실태 (%)

구분		구타	심리적 폭력 (심리적/언어적)	가혹행위 (기합/얼차려)	폭력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9.2	11.2	7.4	16.7
	중학생	26.4	15.7	15.5	32.8
	고등학생	18.0	15.9	19.4	34.1
	대학 및 일반선수	11.8	16.9	14.5	32.6
종목별	개인종목	10.7	9.8	7.4	17.0
	단체종목	20.8	18.4	18.3	37.3
성별	남	19.3	14.7	15.3	30.4
	여	10.7	15.2	10.5	24.8
전체		16.5	14.8	13.8	28.6

스포츠 폭력 근절 위한 3대 방향&10대 과제

3대 방향	10대 과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1.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지원 확대 2. 찾아가는 교육·상담 확대 3. 신고상담시 비밀보장 기능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4.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 마련 5. 조사권·징계권 분리, 외부 전문가 참여 제도화 6. 조직운영평가 '윤리성' 지표 세분화, 가중치 확대
폭력 예방활동 강화	7. 지도자 등록시스템 구축·연계, 채용시 활용 8. 리더십 우수지도자 시상 확대 9. 시·도 교육청 주관 학생선수 상담 상시 실시 10.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 체계화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선수 등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지도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취업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채용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훈련기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지도자 리더십 우수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리더십 우수 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동부의 민주적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운동부 컨설팅과 학교 내 학생선수 상담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 지도자의 인성교육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선수·학부모·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폭력예방교육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G

글·박기태 기자

연합뉴스

이상화 선수가 1월 20일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500m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제 소치까지 내달린다”

빙속 500m 세계新… 내년 올림픽 2연패 부푼 꿈

지난 1월 20일부로 이상화(24·서울시청)보다 빨리 빙판 위를 달릴 수 있는 여자선수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빙속 500미터에서 세계기록을 0.14초나 앞당긴 36초80의 대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는 올 시즌 8개의 월드컵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아직도 끝이 아니다. 이상화의 스케이트 날은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올림픽 2연패를 향하고 있다.

“이곳에서 세계기록을 세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 때 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상화 본인도 놀랐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랐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2~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여자 500미터 디비전A(1부 리그) 2차 레이스. 이상화는 36초80만에 결승선을 돌파했다. 중국의 위징(28)이 지난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 때 작성한 종전기록(36초94)을 무려 0.14초나 앞당긴 세계신기록이었다.

바로 전날 1차 레이스에서 36초99의 기록으로 한국기록을 경신한 지 하루 만에 이룬 업적이어서 놀라움은 더 컸다. 이상화는 하루 만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0.19초나 경신한 것이다. 이로써 이상화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사상 처음 36초90의 벽을 깬 선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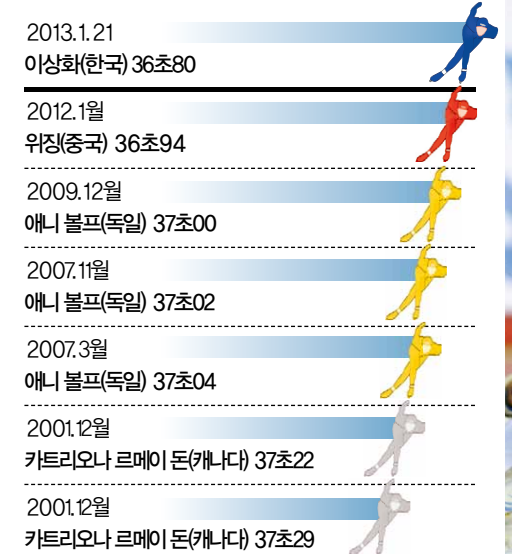
이상화에게는 애초부터 대기록의 조짐이 있었다. 2012~2013 시즌 500미터 경기가 열린 월드컵 4개 대회 7개 레이스에서 우승을 독식하며 7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차 레이스에서 이상화가 한국기록을 작성하며 세계기록에 0.05초 차로 접근하자 “조만간 세계기록도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화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빨랐다. 이날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며 여덟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폭발적인 스타트, 초반 페이스 크게 좋아져

2010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이상화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약점이 뚜렷한 선수였다. 폭발적 막판 스퍼트에 비해 초반 스타트가 약했다. 육상 100미터에 비견되는 스피드스케이팅 500미터는 단거리 종목의 특성상 초반 스타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화는 밴쿠버올림픽에서 첫 100미터 구간을 10초4에 돌파했다. 은메달을 딴 예니 볼프(34·독일)가 첫 100미터를 10초2에 돌파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 시즌 이상화의 약점은 사라졌다. 올 시즌 들어 이상화는 첫 100미터 구간을 평균 10.31초에 돌파한다. 세계기록을 경신한 20일 레이스에서는 전체 선수 중 가장 빠른 10초2에 통과했다. 올림픽에서 이상화를 지도했던 김관규 대한빙상경기연맹 전무이사는 “이상화는 첫 100미터 기록이 약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구간 기록이 워낙 좋아졌다”며 초반 페이스 향상을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이상화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큰 변화는 스트로크(다리 교차) 수다. 다른 선수들이 다리를 10번 교차할 때 이상화는 12번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이후 스트로크를 늘렸다. 윤성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박사의 분석이다. 빙면을 미는 스트로크 횟수를 다른 선수의 1.2배로 늘리면서 추진력도 그만큼 배가됐다는 것이다.

스트로크 횟수를 늘릴 수 있었던 데에는 밴쿠버올림픽 당시 22인치이던 허벅지의 굵기를 23인치로 늘리는 등 하체 근육을 더욱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반면 체중은 2킬로그램 정도 줄였다. 체중 대비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 힘을 내는 단거리 종목에 최적화한 몸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 윤 박사의 분석이다. 그러나 체력과 근지구력이 약화돼 1,000미터 기록은 세계 정상권에서 멀어졌다.

이상화는 이제 500미터에서 지존이나 다름없다. 이상화는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에도 2012년 종별세계선수권대회 우승, 2012~2013 시즌 8회 연속 우승 등 독주를 이어왔다. 이번 시즌 이상화가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동안 경쟁자인 위징과 왕베이싱(28·중국)은 금메달 구경도 하지 못했다.

빙면 미는 스트로크 수 다른 선수의 1.2배

이상화는 올 시즌 8개의 금메달을 추가해 13개의 월드컵 금메달을 보유하게 됐다. 이상화가 역대 월드컵에서 따낸 전체 메달은 53개나 된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집계한 메달 순위에서 남녀 통틀어 이상화보다 많은 메달은 따낸 선수는 볼프(82개)뿐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2연패 달성도 머지않았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소치올림픽에서 이상화를 위협할 만한 적수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이상화가 내년 소치에서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건다면 카트리오나 르메이 돈(최고기록 37초22·캐나다) 이후 12년 만에 여자 500미터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벌써부터 관리만 잘한다면 보니 블레어(미국) 만이 가진 단거리 3연패(88년 캘거리·92년 알베르빌·94년 릴레함메르) 기록을 넘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온갖 새로운 기록에 대한 기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제 이상화의 적수는 오직 이상화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글·허승 (한겨레 기자)

무진 세월 견뎌온 돌섬 어떻게 살까 해도 살더라

멸치잡이 노랫소리, 갯밭 아낙네 무레질에도 끈질긴 희망 담겨

대한민국 끝섬을 찾아 나서는 일은 고단하다. 가는 길이 멀어 편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가거도는 여정의 고단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곳곳에 숨겨진 비경을 만날 때마다 감동을 안겨준다. 기괴한 절경으로 남성미를 풍기는 독실산은 가거도를 찾아온 낯선 방문객에게도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내민다.

대한민국 서남쪽 끝에 위치한 가거도는 길쭉한 해안선과 가파른 해안절벽을 자랑한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 도착한 쾌속선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듯 멈췄다. 바람에 닫혔던 뱃길이 열려서인지 승객도 제법 많았다. 그리고 다시 두어 시간을 달려 하태도에 이르렀다.

배가 한 시간쯤 더 달리자 우뚝 솟은 돌섬이 보인다. 봉우리는 독실산이다. 다도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망망대해에서 수천 년 동안 거친 파도를 견뎌낸 모습이 경이롭다. 돌이 실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선사시대부터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다.

짐을 풀어놓자마자 낚싯배에 올랐다. 가거도 등대를 찾아 나섰다. 등대에는 섬에 처음 들어와 산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등대 이름은 '소흑산도 등대'다. 1905년에 지어 1907년 점등했다. 무인등대로 시작했지만 통행 선박이 많아지자 1935년 유인등대로 바뀌었다.

가거도 '가고, 보이니까 가는 섬'

등대 아래 선창에 배를 정박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등탑이 보일 무렵 걸음을 멈췄다. 계단과 잡목 사이 절개지에 하얗게 반짝거리는 조개 껍질들이 보인다. 조개무지였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토기와 뼈로 만든 도구들이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 장보고 선단이 한·중·일 중계무역을 하면서 쉬어가던 곳이라고도 한다. 쾌속선으로 달려도 먼 뱃길인데, 그 옛날 노를 젓고 바람에 의지해 이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시인 조태일은 '가거도(可居島)'에서 '있는지조차 / 없는지조차 모르는 섬'이지만 '우리 한민족 무지렁이들은 가고, 보이니까 가고, 보이니까 또 가서 마침내 살 만한 곳'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가거도라고 했을까? 가는 길이 힘들어도 섬에 들면 그 괴로움은 까맣게 잊는다.

가거도 등대 맞은편에는 작은 무인도가 있다. 바다제비와 슴새(무인도에만 서식하는 새)들의 천국인 국흘도와 개린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으로, 일몰이 장관이다. 고집스럽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불을 밝히는 갓섬의 등대가 새삼 대견스럽게 보였다.

무레질로 미역을 뜯는 상무레꾼

머나먼 섬에 정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미역을 채취하러 가는 섬사람 임씨 부부를 만나 배를 얻어 탔다. 미역은 가거도·만재도·태도(상태·중태·하태) 등 흑산권역에서 섬사람들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는 해조류다.

회룡산을 빠져나가자 잠시 뒤뚱거리던 배가 이내 자리를 잡는다. 배 안에는 임씨 부부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조씨가 타고 있었다. 조씨는 가거도의 몇 안 되는 상무레꾼(해녀)이다. 태생이 가거도 출신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가거도 사람들은 갯밭에서 미역과 톳·우뭇가사리·김 등을 채취해 생활한다. 갯밭은 간단한 도구나 맨손을 이용해 물이 빠진 갯바위나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조간대를 말한다.

임씨 부부가 간여가 보이는 '현철이 밭밑'에서 배를 멈췄다. 가거도는 작은 여와 갯바위마다 모두 이름이 있다. 한때 섬사람들의 삶을 책임졌던 갯바위들이기 때문이다.

임씨와 조씨 두 여인은 두름박과 홍서리를 바다에 던지더니 한 손에 낫을 쥐고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가거도의 미역밭은 대리마을의 동구똠과 서구똠·대풍리똠·항리똠 네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똠별로 공동작업을 해서 채취한 미역을 똑같이 나눈다. 미역이 식량이자 목숨이기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난해,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 동행들과 함께 가거도를 다시 찾았다. 저녁을 일찍 먹고 나자 모둠별로 작은 술자리가 마련됐다. 술 몇 잔을 마신 후 혼자 조용히 자리를 빠져 나왔다. 낮에 선창에서 조기를 따던 뱃사람들은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지 불을 밝히고 있다. 빗줄기가 제법 굵다. 수은등 아래 비옷으로 무장한 여섯 명의 남자가 조기를 따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조기배 선주들은 대부분 목포사람이다. 가거도에도 배가 있지만 볼락 등 섬 주변에서 주낙을 하거나 홍합을 따는 정도에 그친다. 조기잡이는 흑산도에서 추자도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 조업한다. 자망에 걸린 조기를 배에 싣고 와 선창에서 따는 것이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해 다시 어장으로 나간다. 잡은 조기는 크기별로 선별해 목포로 보낸다.

섬사람들은 한때 바위틈에 보리와 고구마를 심어 식량으로 삼았다. 지금은 그곳에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다. 대리에서 항리로 넘어가는 비탈진 곳도 전부 밭이었다. 1960년대 가거도의 섬살이는 미역과 멸치에 의존했다. '멸치잡이 못하면 병신'이라고 할 정도로 멸치잡이 선단(챗배)에 끼이지 못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려웠다.

노 젓는 소리에 담긴 섬살이

배를 타지 않고는 갯밭에 나갈 수도 없었다. 산이 험하고 가팔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노를 젓거나 무레질을 할 줄 모르면 굶어 죽을 형편이었다. 그래서 무레꾼의 노 젓는 소리(놋소리)에는 '정드는 님을 놈 주믄 놈 죽제' '노착(노를 드리웠을 때 물 위로 나오는 손 잡는 부분)을 놈 줄소냐'라며 노를 남에게 줄 수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만큼 노가 중요했다.

대리에서 국흘도나 오동여 등 상무레꾼만 채취가 가능한 곳까지 가려면 한 시간 이상 노를 저어야 한다. 노 젓는 소리를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멸치잡이 노래도 마찬가지다. 삶이 만들어낸 노랫소리다. 그 중 멸치잡이 노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가거도 사람들은 봄에 미역을 뜯고, 가을에는 멸치를 잡았다. 미역을 말리고, 멸치는 젓을 담가 식량과 바꾸었다. 목포에 있는 건어물상회로 보내기도 하고,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직접 배에 싣고 섬을 돌며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섬돌이'라고 한다.

그 사이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하면서 갯밭에서 반찬거리를 구하고 돌산을 일궈 농사를 지었다. 여자들은 "밥 담은 대롱개는 서울기광을 하는데…"라며 신세한탄을 했다. 대롱개는 도시락을 일컫는다. 여자로 태어난 신세가 대롱개만 못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한 신문에는 가거도에 대해 "여자가 밭·집일 등을 하고 남자는 고기잡이 외에는 일하지 않아 남자가 나무 등을 하면 마을여자들이 그 부인을 나무라는 관습이 있다"고 나와 있다. 1980년대 후박나무 붐이 일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값싼 중국산 후박나무가 들어오자 벌목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됐다.

바닷물로 뛰어드는 상무레꾼(해녀)

1907년대 점등을 시작한 소흑산도 등대를 구경하러 관광객이 줄을 서 있다.

가거도 사람들은 미역과 톳·김 등을 채취해 생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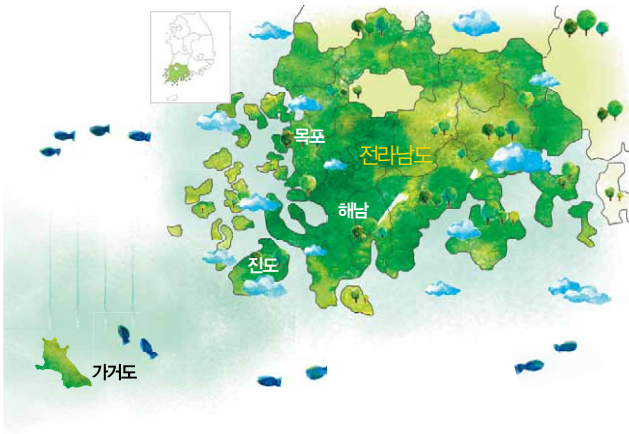
끝섬에 새로운 희망을 걸다

처음부터 남성들이 벌목을 했던 것은 아니다. 미역이 섬 살림에서 귀중하게 여겨지던 시절에는 남성 무레꾼이 많았다. 여자들은 무레질을 하지 못하는 집에 품을 팔러 가거나 남자들이 채취해온 미역을 갈무리해 건조하는 일을 맡았다. 가거도 바다가 거칠고 수심이 깊어 힘 좋고 호흡이 긴 남자들이 무레질을 많이 했다. 여성들이 갯밭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남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후부터다. 남자들은 무레질을 하지 않아도 가장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갯밭은 여자들 차지가 되었다.

멸치잡이와 미역 채취, 조기잡이는 더 이상 섬살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전에 비해 뱃길이 조금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먼 길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국토 끝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연 2,000여 명의 외지인이 가거도를 찾는다.

가거도는 500명의 주민들만 지켜야 할 섬이 아니다. 끝섬이 갓섬 사람들이 갯밭과 섬을 가꾸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G

글과 사진·김준(목포대 교수)

가거도 가는 길

[서울–목포]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서서울 → 목포IC → 1번 국도 → 용해교 앞 삼거리(좌회전) → 동명사거리(좌회전) 목포항여객선터미널

[광주–목포] 무안광주고속도로 이용, 광주 → 운수IC → 무안광주고속도로 → 함평JC →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IC → 목포항여객선터미널

[부산–목포] 남해고속도로 이용, 부산 → 남해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산월IC → 광주제2순환도로 → 유덕IC → 상무교차로 → 운수IC → 무안광주고속도로 → 함평JC →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IC → 목포항여객선터미널

서울강남고속터미널–목포 하루 26회, 4시간 소요

부산(사상)–목포 하루 9회, 4시간 10분 소요

광주–목포 10~20분 간격, 1시간 50분 소요

울산–목포 4회, 5시간 30분 소요

KTX 서울(용산)–목포 하루 10회, 3시간 30분 소요

새마을·무궁화 서울(용산) 목포, 하루 8회, 4시간 40분~5시간 소요

문의 흑산면사무소 가거도출장소 061)246–5400

극중에서 그(조재현 분)와 그녀(배종옥 분)은 '결혼 빼고 다 해본 사이'다.

인텔리 커플의 지적 로맨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반평생 사랑과 이별을 반복한 한 남녀의 로맨틱한 우정을 그린 국내 창작극이다.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교수인 정민과 은퇴한 국제분쟁 전문기자 연옥. 두 사람은 어느덧 인생의 황혼을 향해가는 50대가 됐다. 이들은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또 이별했다. 서로 모르고 살아온 시간보다 알고 지낸 시간이 더 긴 이들의 관계는 '결혼 빼고 다 해본 사이'다.

정민은 연옥에게 매주 목요일 주제를 정해 대화를 나누자는 제안을 한다. 둘만의 특별한 목요일은 비겁함·행복·역사 등 거창한 주제로 시작하지만 매번 사소한 싸움으로 번지면서 과거의 오해들이 되살아난다. 둘은 이내 함께했던 추억을 얼마나 다르게 기억하는지 깨닫는다. 둘이 만나는 목요일은 다시 서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차가운 도시적 매력 속에서도 수줍은 소녀 감성을 보여주는 배우 배종옥과, 연극과 드라마를 넘나드는 배우 정재은이 은퇴한 국제분쟁 전문기자 연옥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배우 조재현과, 관객을 웃고 울리는 배우 정웅인이 화려한 입담의 정민 역으로 분한다.

작품은 '친구와 연인 사이'라는 독특한 커플의 에피소드를 그리는 듯하지만 그들의 사랑·갈등·화해를 통해 '그와 그녀'라는 남녀의 본질적 차이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랑이라는 친근한 소재에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캐릭터와 독특한 상황설정, 그리고 지적 대사들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한다. 연극 마니아는 물론 중·장년층 관객까지 공감할 만한 작품이다. 2월 16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순회공연에 들어간다. G

글·김지연 기자

기간 2월 16일~3월 3일 **장소** 대구·화성·부산 순회공연 **문의** 02-766-6007

연극

쉬어 매드니스

매회 살인사건의 범인이 달라지는 독특한 형식의 코믹 추리극이다. 관객참여형 연극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극중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배우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상황을 재연한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관객들을 심문하기 시작한다. 진짜 범인을 잡으려는 관객과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으려는 배우들 간의 심리전이 긴박하게 전개된다. 연출가 변정주 씨가 지휘하고, 연극배우 이현철·서성종·정태민·김철진 등이 출연한다.

기간 '오픈 런'(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는 공연)
장소 대학로문화공간
문의 02-744-4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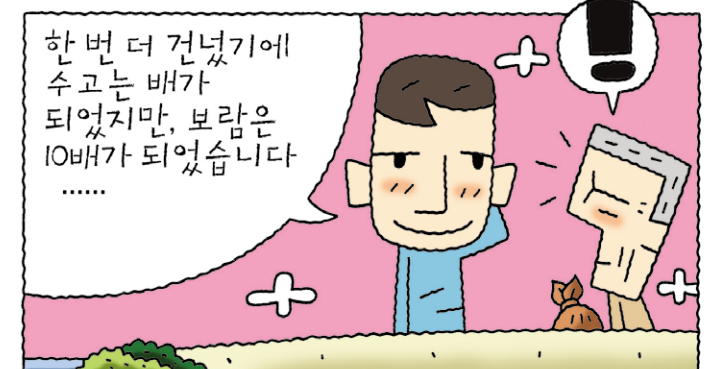
콘서트

스티브 바라캇의 발렌타인 콘서트

스티브 바라캇은 캐나다 출신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다. '레인보 브리지' '휘슬러 송' '플라잉' 등 TV와 CF, 라디오의 시그널로 사용되며 널리 사랑받는 명곡을 작곡하고 연주했다. 휘성·존박·김그림·세인 등 한국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무대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이루마와 함께 한 파크콘서트에서는 자신이 작곡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곡으로 환상적 무대도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바라캇의 음악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밴드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기간 2월 14~16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318-4301

아름다운 셈법

최영순

친절과 배려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해주고, 암담한 것을 즐겁게 만든다. - 톨스토이(러시아의 대문호)

인연, 그 멋진 발효를 위하여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아들아! 너를 군에 보내고 돌아오던 날, 마음이 울컥했다. '눈에 밟힌다'는 옛말을 온몸으로 크게 실감하는 하루였다.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네 생각뿐이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할까? 잠은 제대로 잘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훈련은 잘 받고 있을까? 기상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침구를 개고 있겠지?

너와 지난 삶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출근하는 아빠에게 매달려 울던 일,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던 일, 네 종아리에 회초리를 댄 일, 네가 대학입시에 실패해 우리 가족이 패닉 상태에 빠졌던 일, 대학 합격통지서를 들고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던 일,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중계를 관전하며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억이 눈에 밟히더구나.

더불어 지난 날 나는 네게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밀려온다. 너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마음과 달리 생활하는 몸으로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 같구나. 대화하자고 만든 자리에서 네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계만 하지는 않았나 하는 때늦은 후회가 밀려와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마음과 몸의 스킨십이 없는 대화는 서로에게 피로감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배추와 양념이 만나 김치가 되고, 게와 간장이 서로의 몸 속에 스미고 배어 게장이 된다. '인연이란 관계들의 숙성'임을 구체적 생활감각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너는 부디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고, 배추와 양념이 만나 김치가 되고, 게와 간장이 서로의 몸 속에 스미고 배어 게장이 된단다. 생면부지의 여자와 남자가 만나 연인이었다 운명처럼 한 가족을 이루듯, '인연이란 관계들의 숙성'임을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생활감각을 통해 터득하는 군 생활이 되기 바란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까우면서도 쉽지 않은 사이다. 스킨십 넘치는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군 생활을 미래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나는 너를 아주 장하게 여긴다. 조금 늦되기는 해도 묵묵히 네 길을 걸어가는 너를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단다. 아빠가 워낙 성미가 급해 일만 생기면 닦달해댄 것이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늦게나마 그냥 지켜보기로 했단다. 당분간은 너와 축구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돼 무척 서운하고 답답하구나.

너는 없지만 아빠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네 몫까지 열심히 관전한단다. 기성용의 실력은 절정을 맞은 듯하다. 한마디로 물이 올랐다. 구자철이 3호 골을 넣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하마.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안타깝게도 네가 염려한 것처럼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길로 들어선 것 같다.

늦은 밤 네가 없는 집에 들어서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다. 하지만 너만 하겠느냐? 또 네 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음의 뜰에 수북하게 적막의 먼지가 내려앉는다. 군 생활이 예전에 비해 편해졌다고는 해도 아무려면 집만 하겠느냐? 마음도 몸도 춥고 고되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으니 군 체험을 낭비로 여길 필요는 없다. 그곳 생활이 네 미래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몸도 마음도 더욱 단단해질뿐더러 타자와 관계에서도 배려와 이해와 관용의 미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훈련 마치는 날 면회 가마. 잘 지내라. 사랑한다. 아빠가 G

글 · 이재무 (시인)